리폼드대학교 신학대학원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USA
대한예수장로교회 미주합동총회 인준신학교
2012년 봄학기(신.편입)학생모집
1342 W. Adams Bl, Los Angeles, CA 90007-1635
Tel: (818)337-8280 / E-Mail: spcr113@hotmail.com

기독일보

스카이 임플란트 종합치과
24개월 무이자
36개월 무이자
각종 보험 특혜
임플란트 Dr.Lee
서울대 졸업
현재 로마린다
치대 정식교수
Tel. 213-290-7020 (웨스턴과 올림픽)

Tel. 213-739-0403 Fax. 718-228-9506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anuary 5, 2012 Vol.322

커뮤니티 발전 위해 한 목소리로 힘 모아야

남가주 지도자들, 2012년 신년조찬기도회 가져

남가주 교계 및 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한 2012년 신년조찬기도회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 목사) 주최로 3일 오전 7시 30분에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조찬기도회는 사회에 진유철 목사(교협 수석부회장), 기도에 황선철 장로(남가주CBMC연합회 회장), 특별찬양에 글로발메시아여성중창단, 설교말씀에 변영익 목사, 신년사에 신연성 총영사(LA총영사관), Eric Garcetti(LA 시의회 의장), 김영 이사장(한미동포재단), 특별기도 및 광고에 박세헌 목사(교협 총무), 축도에 송정명 목사(미기총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는 하나입니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변영익 목사는 "새로운 꿈을 안고 출발하는 2012년 새해가 우리 남가주 교계와 동포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2012년에는 우리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모든 동포단체와 교계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한인 커뮤니티가 발전하고 동포들의 삶이 넉넉해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남가주 교계와 사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신년조찬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Eric Garcetti 의장은 신년사에서 "현 시대는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두려움의 시대"라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김영모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가 교계의 연합과 발전을 위해, 박종대 목사(사회참여연대 대표)가 교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박용덕 목사(OC교협 직전회장)가 미국의 신앙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우성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조국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조찬을 함께 하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토마스 맹 기자

밀알, 96명에게 16만8400불 장학금 전달

장학생 및 근로 복지생에게 지급…12년 동안 누적지급액 134만여불

밀알 장학생과 근로 복지생들이 장학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에 임했다.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29일 오전에 한길교회(노진준 목사)에서 남가주밀알선교단(이영선 목사, 이하 선교단)·밀알장애인장학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리고, 이 자리에서 96명의 장학생에게 총 16만8400불이 지급됐다. 이로써 2001년부터 이번까지 선교단에서 장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총 누적 지급액은 133만8000불이 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과 한국, 제 3국의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이날 수여 대상자인 미주 장애인 장학생 15명, 근로 복지생 9명, 꿈나무장학생 32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진준 목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무례치 아니하며 겸손히 행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다. 장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갖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격려사를 전한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는 "나도 10년의 유학생활을 하면서 6년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타지에서 공부한 경험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이웃 사랑에 보답하는 귀한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수여식에서는 사회에 양인 목사, 찬양에 남가주밀알선교단 찬양팀, 기도에 유환 장로, 말씀에 노진준 목사, 격려사에 민종기 목사, 장학금 수여식에 윤자근 이사(장학위원장), 장학생 대표 인사에 박명석 학생, 감사의 말씀에 이영선 목사, 축도에 김영길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INTERVIEW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이 교회 부흥의 시작점

최상훈 목사

남가주 지역의 고도시(古都市) 벤추라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최상훈 목사가 처음 벤추라감리교회에 부임했을 때 성도들은 30여명 뿐이었다. 벤추라 시가 속한 벤추라 카운티 전체를 통틀어야 한인이 4천명 밖에 안되니 사실 이 넓은 지역에서 교회 규모가 작은 것은 어떤 의미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워낙 오래된 도시라 새로 유입되는 한인 인구도 없고 한인마켓, 한인식당도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최 목사가 부임한 후 6개월만에 새가족이 70여명이나 등록, 거의 모두 정착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지금도 부흥은 생동감 있게 계속되고 있다. 남가주에서도 한인이 적기로 소문난 벤추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 이야기를 들어 본다.

최상훈 담임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의 길에 들어섰다. 그의 아버지는 서울 관악구 예광감리교회를 1975년 개척해 대형교회로 성장시키고 2010년 은퇴한 최덕순 목사다. 아버지를 따라 목회자가 된 그는 감신대를 졸업한 후 연세대 대학원에서 교회음악과 협성대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동시에 공부하며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국 감리교단의 존경받는 원로로 통하는 아버지 최덕순 목사 덕에 앞길이 탄탄한 목회를 했을까? 물론 아버지의 목회를 바로 옆에서 지켜 보고 또 함께 하며 은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목회의 기초를 탄탄히 배웠다. 그러나 실제 목회에서는 달랐다. 그는 어려운 곳만 골라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명을 받았던 것 같다.

예광교회에서 20명 밖에 안되던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에는 고 3들에게도 주일성수는 기본에 토요예배까지 철칙으로 내세워 부모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5년만에 220명으로 부흥하며 거의 전원이 대학에 합격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부흥이 된 후에는 돌연 그곳을 떠나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난지도로 가서 입대 전까지 사역을 했다.

제대 후 선교사로 헌신해 아프리카 우간다와 케냐에서 선교하며 맨땅에 교회 개척을 했고 수단 지역의 피난민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다. 아프리카 선교 사역 후 안식년을 준비하다 알래스카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가장 더운 적도 지방에서 가장 추운 동토의 땅으로 간 그는 알래스카 최초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인 알래스카예광감리교회를 개척, 설립하고 크게 부흥시켜 아름다운 성전까지 완공했다. 그러나 성전을 입당하던 그날 사임을 발표하고 벤추라감리교회로 부임해 다시 바닥부터 목회를 해 오고 있다.

➡ 2면에 계속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THE LAW OFFICE OF BRIAN W. TOFILLA Since 1989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213-386-5500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it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crover GREEN HOME INNOVATION
친환경 미래 에너지 크로버
엔프렌LED가 당신의 눈을
선명하고 환하게 밝혀 드립니다

LTK-1600WIDE ▲

LTK-1500K ▲

LTK-1100L ▲

Flexible LED desk lamp

LED 램프/
눈부심 방지 커버
높낮이,방향
각도 조절부

초대형 비구면 다초점 렌즈
보는 각도와 상관없이 선명하게 왜곡없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여 피로감소에 효과적입니다.

● LED 확대경 램프 ▶

추천의 글
LED 확대경 램프를 추천합니다

새로 개발된 LED 확대경 램프를
얼마전에 어느 분의 소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눈이 부시지 않아 눈을
보호해 주고 피곤치않게 도와주며,
전력도 덜 소모케하며, 열도 나지 않아
참으로 친환경적인 새로운 램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글자마저
확대해서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참으로 실용적입니다.
램프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고려하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11년 9월 20일

박희민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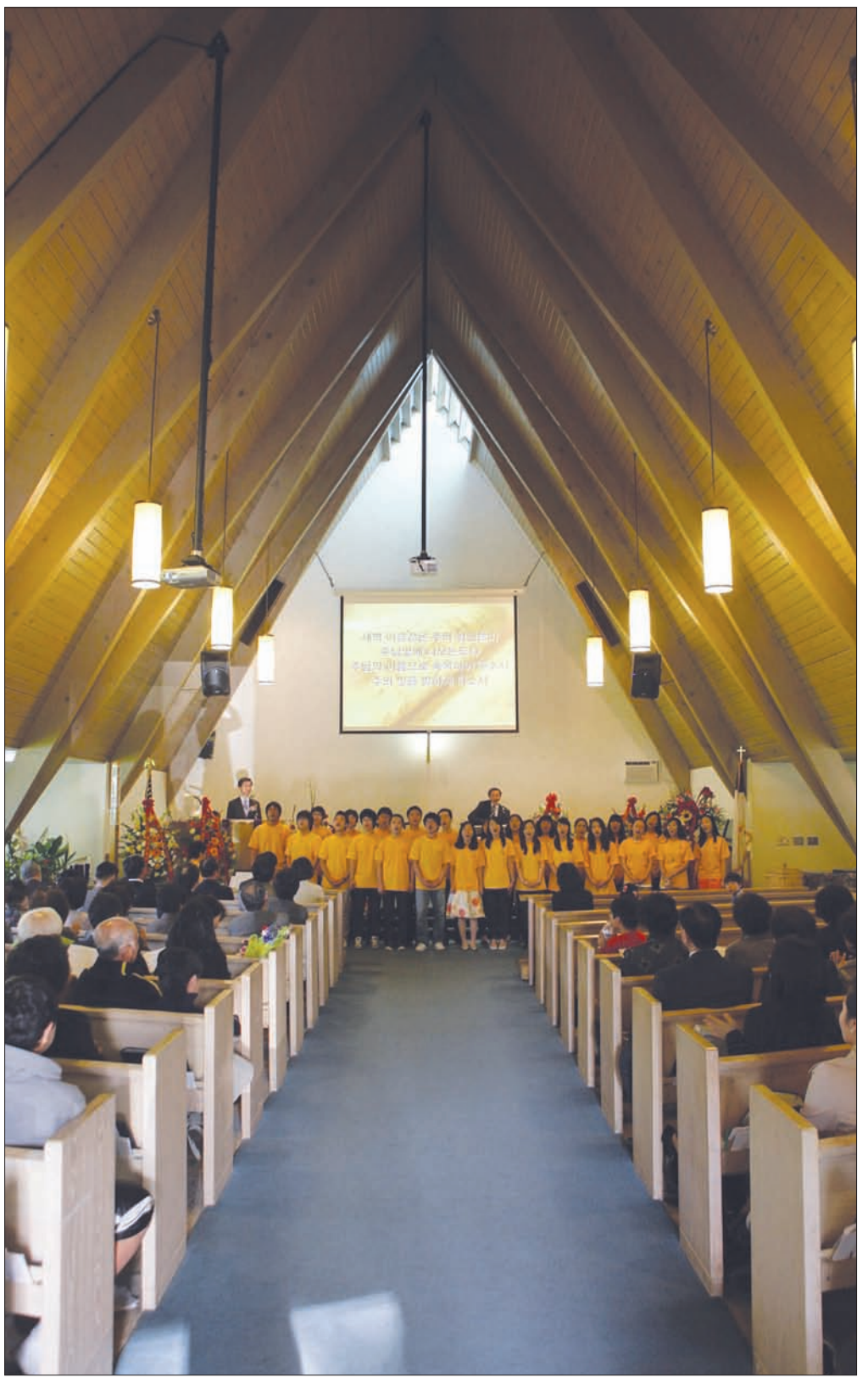
***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Los Angeles * 정스백화점 (213) 389-1111
* 김스전기 (213) 386-4882
Fullerton * 나눔 홈쇼핑 (714) 515-3408
Torrance * Good 네이버스 (310) 326-6666
Las Vegas * SKY-N 홈쇼핑 (702) 370-3366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crover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2년만에 5배 성장한 벤추라감리교회 최상훈 목사 인터뷰

부흥 메이커가 말하는 부흥 "난 도구일 뿐"



-벤추라감리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인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은 이곳의 1백명 부흥은 한국의 1천명과 같다고 합니다. 한 해에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지를 만들어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한지 한 해만에 교회는 3배 이상 부흥했고 통계로 보면 거의 매주 새신자가 왔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잘했거나 뛰어나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흥의 비결은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과 인간이 하는 것은 처음에는 비슷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곧 한계를 드러내며 큰 차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교회가 많은 변화를 주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성령 운동, 기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기를 "현대 교회의 핵심가치는 무엇이냐"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오히려 더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대를 초월하는, 변치 않는 진리, 바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일입니다.

요즘은 진보가 대우받고 보수는 마치 수구꼴통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히 선포될 때만이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요?

저희 교회는 바쁩니다. 예배도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전에는 주일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따로 있습니다. 수요예배 전에도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새벽기도회, 토요치유새벽기도회 등이 열립니다. 주님과 교제가 많아질수록 비례하여 주님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토요기도회 때는 고질병이 고쳐져서 간증도 하고 방언도 받고 쓰러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늘상 일어나니 교인들도 낯설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한인들은 이민생활에 상처가 많고 영적 갈급함이 큽니다. 그래서 토요기도회 때에는 우리 교회 성도뿐 아니라 주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고 그것을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특출난 부흥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앓던 병이 안수기도 중에 치유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흥의 비결은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터 닦고 성도 간 소통의 장 열어

무엇보다도 기적 가운데에 오직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기에 목회자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자신이 원하시는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목회한 곳은 아프리카나 알래스카 등, 소위 선호될만한 지역은 아니었는데요.

적도 지역에서 6년, 알래스카에서 7년간 목회와 선교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결정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제가 순종한 것뿐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7개 교회를 개척했고 고아원 사역을 했으며 알래스카에서는 7년간 목회하며 3층짜리 성전도 건축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역은 제가 이룬 것은 티끌만큼도 없고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일하시기만 하면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성전 건축까지 하시며 기반을 잡았는데 벤추라로는 왜 오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도들도 정말 격렬할 정도로 말렸습니다. 7년간 고생하며 성전을 다 짓고 입당까지 하는, 너무나 감격적인 날 저는 눈물의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개척한 이후, 그 지역에서 세번째로 큰 교회로 부흥된 상태였고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너무나 분명한 주의 응답을 받은 상태였고 제 영적 멘토이신 목사님과 여러 선배들께서 제 사역에 동일한 응답을 받으신 상태였기에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실은 6년간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뉴질랜드에서 1년 안식년을 보내려고 뉴질랜드 비자도 다 받고 답사도 다녀와 살 집도 계약을 마치면서 "이제야 드디어 양떼가 뛰노는 이 천국 같은 곳에서 좀 쉬나 보다" 했는데, 떠나기 3주 전에 알래스카로 소명을 받았지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부임 전 벤추라감리교회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주간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하며 준비했습니다. 저는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터전만 닦았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소통의 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것 두가지 외에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주 성령이 임재하는 부흥예배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한 주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매주 성도들이 눈물과 회개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였고 결석자를 위하여 수십장씩 만든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취업전문의 직업대학 ORT
연방정부 학력공인대학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건축설계…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의사보조… Medical Assistant
약사보조… Pharmacy Technician
ESL…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Accounting (AA Degree)
그래픽,포토샵…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율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오전, 오후, 저녁
-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Advice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방문비자(B1,B2)를 학생비자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쇼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818.382.6000
Bus 20번 ORT Lajolla Fairfax 맥도널드 Wilshire
상담필수 오전 8:30~1:30 한국인 상담 : 그레이스
직통 (213) 703-6863
(323) 966-5444
상담: 그레이스 (Grace)

복음의 본질 붙잡고
성령 운동, 기도 운동 해야
"삶과 말씀이 동일한 목회자 되고 싶어"

설교CD가 나오면 순식간에 남는 것이 동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전부 다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어야 할 대상은 성도가 아닌 바로 저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혼자 다시 듣고 또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차 안에서도 부족한 나를 보며 엉엉 운 적도 많습니다.

설교란 단순히 좀 감동을 주거나, 혹은 성도들에게 독특하고 탁월한 성서적 해석을 전할 때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내가 놀랄 정도로 단어 하나하나가 생명을 가진 것처럼 전율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모두가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를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첫 목회는 예광교회 고등부였습니다. 학생이 20여명 되던 때에 사역을 맡았고 5년만에 220명으로 부흥했는데 그 중 60%가 고 3이었습니다. 본 교회 주일 성수는 기본이었고 토요일 예배도 반드시 참석하게 했습니다. 일년에 4-5차례 전도주일을 준비할 때는 일주일동안 하루 6시간씩 교회에서 중보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2명 빼고 모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기독교 잡지에서 취재도 왔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세상에 믿는 자가 본을 보여야 한다.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지금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목사, 선교사, 리더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문대학에서 가르치는 제자도 있고 미국으로 유학 와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제자도 있습니다.

이들 중 '카타콤 기도실'이라는 기도 지원대를 만들어 지금도 제 사역을 중보기도 해 주고 있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중요한 집회가 있다"고 페이스북 기도실에 띄우면 이들은 모두 동일한 시간에 기도해 줍니다. 제가 특별안수기도를 할 때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십명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에 믿음이 생깁니다 아프리카 선교 도중 총기 강도 등을 만난 급박한 위기 상황에도 주님이 보호하셨을 때, 나중에 그들이 보았던 꿈과 환상이 일치하는 등 놀라운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주일, 수요예배 전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회를 합니다. 중요한 행사 전에는 사역자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최덕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적지 않으시죠?

가장 큰 영향은 아버지의 목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삶과 강단에서의 말씀이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제 아버지이지만 "정말 도대체 이런 분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목회자도 사실 사람입니다. 교회에서야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집에서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밖에서나 안에서나 정말 진실하시고 한결같으십니다. 새벽에 제가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나올 때면, 아버지가 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밤새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늘 주님을 최우선에 두셨고 돈을 쓰실 때에도 주님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로 가는 힘든 결정을 할 때도 오히려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한국에 안주하지 말고 당연히 가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저 역시 제 아버지처럼,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아내가 집에서 보는 저의 모습과 교회에서 성도들이 보는 저의 모습"이 동일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성도들에겐 그 진실이 통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청년 사역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저는 Camp of God(COG)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CTS기독교방송의 청년 독수리 프로그램으로 유명하신 김형민 목사님이 시작한 사역으로 각 지역의 대학 캠퍼스에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에도 알래스카주립대학교 안에서 COG 사역을 했고 이곳 벤추라에 와서도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벤추라칼리지, 옥스나드칼리지, UC산타바바라 등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남가주 전체지역의 성령의 불씨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벤추라카운티교역자협의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벤추라 지역의 교회 연합 상황은 어떠한가요?

지난해부터 교회 연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잘 되려면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몸임을 인식하고 서로를 겸손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같은 아군입니다. 그러므로 아군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이단, 사이비, 안티기독교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반면 내적으로는 서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동역하면,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고 거룩한 영적 전이가 이루어져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은혜받는 그런 연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벤추라 지역은 성탄연합예배, 부활절연합예배를 주요한 행사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달 이 지역 목회자들이 모여서 월례회를 드리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가 각각 다르지만 벤추라 지역의 부흥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기에 매우 고무적입니다.

-목사님은 교회 음악을 공부하신 것이 독특한 이력 중 하나인데, 문화 사역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예빛선교단을 만들어 뮤지컬을 열고 각종 자작곡을 발표하는 등 활동했습니다.

그 후에는 "화요 쉼터"라는 크리스천 콘서트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이보다 더 나은 기독교 문화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소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 쉼터라는 콘서트 형식의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아침, 창문, 최덕신, 최인혁, 박종호, 김수지, 꿈이있는자유 등 그 당시 유명한 CCM 가수 중에 이곳을 안 거쳐간 사람이 없었고 나중에는 사회 저명인사들, 국회의원, 국무총리까지 초청해 청소년들과 기독교적 비전을 나누는 자리로 발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극동방송에서 그 공로로 "한국 교회음악에 공헌한 70인"에 저를 선정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저 저는 통로로 사용받은 것 뿐인데 너무 과분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처럼 늘 겸손히 굴복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이 부르신 곳이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것이 저의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형 기자

OC목사회 신임 회장에 신종은 목사

"영성 회복과 목회에 위로 주는 목사회 될 것 다짐"

오렌지카운티목사회 관계자들. 사진 가운데가 신종은 신임회장.

오렌지카운티목사회(이하 OC목사회)가 제32회 정기총회를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남가주동신교회(손병렬 목사)에서 개최하고, 회장에 신종은 목사(풀러튼제일교회)와 수석부회장에 고건주 목사(아늑한교회)를 인준했다.

신종은 목사는 소감으로 "내적으로는 목회자의 영성 회복과 친교에 힘쓰고 외적으로는 커뮤니티 봉사에 힘쓸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외로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서로 마음이 통하는 아늑한 분위기의 목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1부 경건회는 인도에 손태정 목사(OC목사회 직전회장), 대표기도에 신종은 목사, 설교에 문현봉 목사(OC목사회 자문위원장), 축도에 박대근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문현봉 목사는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목회자들은 주님을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 커뮤니티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에서 지난 회기 목사회 수입 총액은 4299불, 지출 총액은 4700.85불로 보고됐다.

지난 회기 OC목사회는 지난 2010년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다니엘 연합기도회 및 큐티 세미나를 시작으로 2011년 2월 7일 결혼 예비학교 강사 세미나, 4월 25일 류모세 목사 초청 열린다 성경 세미나, 7월 15-16일 장학일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교회와 한인단체를 섬겨왔다.

토마스 맹 기자

나성순복음교회 칸타타로 송구영신예배

기독교 성가와 명곡들로 은혜 전해… 진유철 목사 "믿음으로 한 해 살자"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신년을 맞이하고 있다.

나성순복음교회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2011년을 마무리하고 2012년의 시작을 열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연합성가대의 칸타타를 무대에 올렸다.

70여명의 성가대원들과 4명의 독창자들, 관악 앙상블이 뿜어내는 웅장한 노래들에 성도들은 감동과 은혜를 만끽했다.

먼저는 진유철 담임목사의 환영인사 후, 알토 우성영이 신아리랑을 통해 이민자들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음악회가 시작됐다.

바리톤 박기흥은 강건너 봄이 오듯이, 소프라노 김도희는 넬라 판타지아, 테너 김일두는 The Impossible Dream 등의 곡으로 최고 수준의 음악을 청중들에게 선사했다.

이어 연합성가대는 현대교회 음악의 대명사로 통하는 존 루터가 작곡한 글로리아를 시작으로 나의 찬미, 호산나 주를 찬양하라, 복의 근원, 영광 할렐루야 등을 연이어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말미에는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모두 한 무대에 올라 찬양함을 통해 전 세대가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행사가 자정을 향해 가자, 곧 송구영신예배가 시작됐다. 진 목사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또 성도들은 뜨거운 합심기도로 2012년 한해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간구했다.

김준형 기자

미주장신대 제 6대 총장에 이상명 목사

이사진, 15만불 지원 약정

이상명 목사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 신학교인 미주장신대학교의 이사회(총회파송이사회, 이사장 김인식 목사)가 지난 12월 20일 미주장신대학교 제 6대 총장으로 이상명 목사를 선임했다.

이상명 목사는 미주장신대학교 교무처장 및 신약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계명대학교(B.S.),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클레어몬트대학원(M.A., Ph.D.) 등에서 수학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총장과 직원들로부터 학교 전반에 걸친 보고를 받고 신학교의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이사들이 15만불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약정했다.

조요한 기자

지킴 비전 컨퍼런스에 3000여명의 청년 학생들과 목회자, 선교사가 참여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2011 지킴 비전 컨퍼런스 대단원의 막 내려

한 마음, 한 성령, 하나의 미션으로

남가주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해 준비해 온 미주한인청년학생선교대회 GKYM Vision 2011이 지난 12월 20일, 샌디에고 타운컨츄리 컨벤션센터에서 3000여 명의 청년학생,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성대히 열렸다.

'더 높은 부르심2'(Higher Calling2) 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미션으로 나아갈 것을 도전했다.

교회와 부모들의 도움으로 컨벤션센터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청년학생들은 교회와 단체, 개인, 각 대학 캠퍼스별로 원활하게 등록을 마쳤다.

첫날 오후 4시, 느헤미야 로컬 찬양밴드로 시작된 콘서트는 모든 이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고, 이번 대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뜨거운 부흥을 짐작케 하였다.

매 저녁 저녁식사는 샌디에고 지역 한인교회에서 온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3000여명의 학생들의 식사 배식을 도왔다.

또한 둘째날에는 북한과 세계를 위한 기도로 모든 참가자 학생들이 한끼를 금식하며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회 첫날 강사로 나선 뉴송교회의 데이브 기븐스 목사는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되심"을 강조했고, 전 세계로 번져가는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소개해 청년학생들에게 도전을 던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중보기도가 24시간 연쇄 기도체인으로 이어졌다. 200여명의 목회자와 100여명의 간사들,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되어 24시간 기도의 불을 밝히며 대회가 순조롭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했다.

저녁 집회 이후 방별로 모이는 순교제 시간은 준비된 리더의 인도로 진행됐다. 자기의 삶을 나누며, 지나간 아픔과 슬픔,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경험담을 나눌 때 모든 맴버들이 공감하게 되었고, 웃음과 눈물로 한 밤의 진솔한 나눔의 시간을 만들어 나갔다.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60여 개의 선택특강이 준비되어 있었다.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각자의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젊은 날에 준비되어야 할 것들을 설명하며, 미래의 비전과 꿈을 심어 주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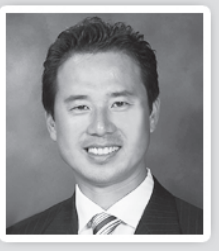
전 통일부 장관이며 '하나님의 대사'의 저자 김하중 장로, 몽골 선교사이며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 에스더기도운동의 이용희 교수, 창조과학선교회의 이재만 선교사, 선교한국 파트너스의 한철호 선교사 등이 선택특강으로 주목을 받았고, 의료선교, 무슬림선교, 미디어사역, 기도운동사역, 전문인을 위한 미전도종족사역 등 많은 분야의 선택특강이 마련됐다.

셋째날에는 한어권과 영어권으로 나뉘어져 전도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 믿지 않는 이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것인가를 4영리 소책자로 배우며 서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전체 참가자 학생들이 학교, 쇼핑몰에 직접 나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저녁 얼바인 베델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는 전체 메시지를 통해 서로 인정해 주기, 서로 서로 받아 주기, 서로 사랑하기를 강조했다. 이러한 것은 선교사의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덕목임을 그는 역설했다.

이날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선교사적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가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융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챨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올해도 풍성하게 성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건강히 자라나는 사역을 위해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신실한 동역자를 모십니다

모집분야:
교회행정: 디자인 간사, 영상 간사
교육부서: 유아부 전도사, 유치부 전도사
지원자격:
– 디자인 간사: 디자인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이 있으신 분 (교회경력자 우대)
– 영상 간사: 영상관련 전공자 또는 영상 편집 및 CG 작업 가능하신 분
– 교육부 전도사: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 또는 현재 재학 중인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이력서 (사진포함) / 자기소개서 / 신앙고백서 / 추천서 2통 (목회자, 학교/직장)
*포트폴리오 (디자인, 영상 간사)
접수마감: 2012년 1월 15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처: 세리토스장로교회 행정목사 앞
제출서류는 email로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inyourgrace@ilovecpc.com)
포트폴리오는 우편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문의전화: 562-860-5451
CPC 세리토스장로교회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11841 178th Street Artesia, CA 90701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 2012년 1월 9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요."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시편 146:1-10

장 재 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5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6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8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9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10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본문은 이스라엘 제 2대 왕이었던 다윗의 찬송 시로 그의 신앙 간증이면서 고백입니다.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유목민인 아버지에게서 여덟 명의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자라났지만 믿음만은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감동을 드린 참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사무엘상 13:14에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쓸모를 인정받음으로부터 목동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3절의 방백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 또한 왕으로서 정치하는 사람이면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중에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대를 걸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토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모함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5절은 다윗이 자기 생애를 통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하는 이유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는 말씀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으로 확실히 믿어질 때 영원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기대는 내가 믿음을 잘 가꾸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 처세를 했을 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온갖 좋은 조건으로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적 주권자로서 역사를 임의로 주관하시며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더라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악으로 잘못 길들여진 옛 생활을 그대로 되풀이한다면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46편은 다윗의 오늘이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온전히 믿음 하나를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결과였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찬양시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할렐루야를 연발하는 생애로 축복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은 생김새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지식과 애정, 의지의 인격체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흠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체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어 버림받은 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이후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다가 찾지 못하면 다른 대체물을 찾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본래의 영적 심리 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종교 심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1:1-4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命定)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하는 이 말씀은 세계 모든 나라와 만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관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절대주권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의 역사를 엮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말하길 "너는 담대하라"라고 하며 위로가 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사41:5-6). 그리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메질꾼을 장려하며 우상을 만들며 하는 말이 "땜이 잘 된다"하면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미신, 우상을 좇아 살아가고 있으며 또 하나 재물을 좇아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17-19에서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재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거나,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부자들은 교만하지 말고,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활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된다면 장래에 자신을 위한 좋은 자리를 하늘에 마련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보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념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소망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리어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3:15-18)"한 구약의 이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담력과 정절의 본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를 다른 축으로 바꾸어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역사의 축이 되어 돌아갔으나 이제는 바벨론을 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수산궁에서 서러움과 수모 가운데 살아갑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정해진 시각에 절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의 정절을 더럽힐 수 없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끌려온 이들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왕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 왕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는 낯빛이 변하여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하고는 그들을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불꽃 가운데서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게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4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는 모세가 힘주어 강조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사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25에"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기와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용도사명에 따라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정절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단3:28-29)"고 우상이 난무하던 바벨론을 향해 명하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는 신앙인은 불꽃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그 구원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재료로 확증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편 147편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라한 것은 하나님은 영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 곁에 있는 한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육신의 기대감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영적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생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인격과 의리와 예절이라는 믿음의 담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이 당하는 어려움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영육간에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24-26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두 길을 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12-20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신앙인의 가장 올바른 생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알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되 우리 육신의 형편이 어찌되던 간에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이라야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토록 가장 안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끝까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영생을 하늘 조건으로 보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해 외 선 교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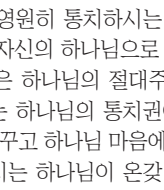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장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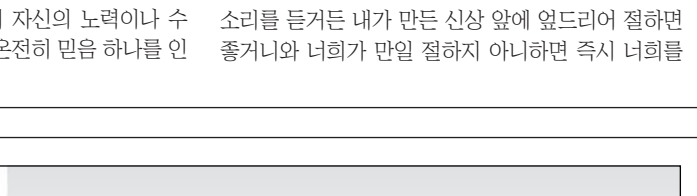
은파교회 창립예배



오아론 담임목사

초청의 글
주님은 속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량 추수할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깨달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은파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모든 은사자들이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설교: 한기홍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총회장)
축사: 엄영민목사(OC기독교교협 회장)
찬양: 어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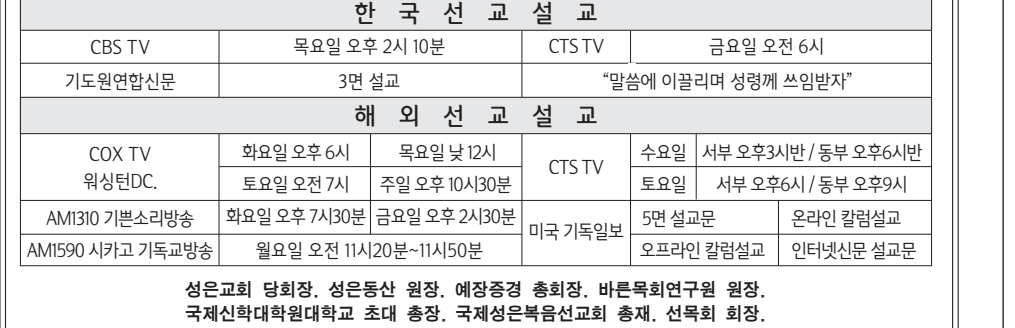


일시: 2012년 1월8일(주일) 오후4시
주소: 14706 S.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전화: 714-504-0691
E-mail : aronoh@gmail.com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은파교회 (EUNPA CHURCH)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제21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이취임예배 및 신년하례회



회장 엄영민목사 이사장 윤성원목사 후원이사장 정호영장로

일시: 2012년 1월9일 저녁6시
장소: OC제일장로교회 |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el.714-891-2029

회장단
회장:엄영민목사
수석부회장:민경엽목사
신학담당부회장:손병렬목사
기획1부회장:송규식목사
기획2부회장:윤덕곤목사
대외담당부회장:박상목목사
교육담당부회장:오세호목사
선교담당부회장:남성수목사
영성담당부회장:이호우목사
차세대담당부회장:고현종목사
평신도담당부회장:손찬우집사

임 원
총무:백낙균목사
협동총무:박흥길목사
심상은목사
서기:이춘덕목사
부서기:박승우목사
회계:이지수장로
부회계:서준석장로
감사:박한규장로
김동석장로

분과위원장
신학:오아론목사
세미나:주성염목사
이민목회:오상철목사
장학:김도영장로
교육:민승기목사
선교:김기동목사
전도:주혁로목사
언론:이정현목사
홍보:박상열목사
음악:송규식목사
방송:윤우경집사
복지:노정도목사
친교:서양훈장로
여성:웬디유사모
구제:최정자목사
차세대:Robert전목사
청년선교:더글라스김집사
실버사역:주도진목사
의료선교:윤재필집사
대외협력:서문준집사
역사편찬:백낙균목사
캠퍼스선교:김정숙사모

이사회
이사장:윤성원목사
총무이사:박용덕목사
이 사:정영수목사
박학선목사
양금호목사
이종은목사
양문국목사
한기홍목사
신원규목사

후원이사회
이사장:정호영장로
이사:이석봉장로
박풍산장로
전준홍장로
김영수장로

이민사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남가주교계 지도자들 신년메시지

새해를 맞이해 남가주 지역 교계 지도자들이 신년사를 발표하며 이민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다.

변영익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변영익 목사는 "새로운 꿈을 안고 출발하는 2012년 새해가 우리 남가주 교계와 동포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서두를 뗐다. 그는 2011년 미국의 경제 불황과 이민 사회의 어려움을 회상하며 "이제 숨 막히는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온 기관차가 긴 호흡을 하며 다시 펼쳐지는 넓은 평야를 바라보며 기적을 울리듯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도에는 우리 동포 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모든 동포단체와 교계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한인 커뮤니티가 발전하고 동포들의 삶이 넉넉해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엄영민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원한 후 "새해에는 미국과 우리 조국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짙게 드리운 어두움이 걷히고 새로운 은혜의 빛이 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고요한 바다 위로 눈부시게 떠오를 새해의 태양처럼 믿음의 가정들마다 모든 면에서 새롭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김영대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김영대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길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각 가정의 사업이 번창해 이민생활이 풍족하고 넉넉해져서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며 살기 좋은 이민사회가 되어 어디를 가나 웃음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김성일 목사

▶샌버나디노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 김성일 목사는 "말씀을 붙잡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더더욱 영육 간에 강건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기원한다"며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원락 목사

▶샌퍼난도밸리교회협의회 회장 김원락 목사는 "우리의 교회가 믿음 없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여, 한인교회에 믿음을 더하소서'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며 "믿음이 있는 교회만이 자신 앞에 진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로 믿고 협력하며 하나님을 위해 공동의 유익을 구하는, 더불어 사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박혜성 목사

▶인랜드지역교역자협의회 회장 박혜성 목사는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과 함께 하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며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며 꿈꾸는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선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라 격려했다.

최상훈 목사

▶벤츄라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 최상훈 목사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축복을 누리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한 후 "3대 세습독재정권에 고통받는 북한동포들과 지하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故 정성식 사모 3주기 추도예배 드려

남가주 교계 원로 정시우 목사의 아내 故 정성식 사모 3주기 추도예배가 12월 31일 오전 11시 30분에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시우 목사를 대신해 인사말을 전한 장남 정우현 장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보니 아버지가 울고 계셨다.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도예배는 사회에 박상원 장로(미주한인재단 회장), 기도에 황보갑 목사, 성경봉독에 김빈센트 변호사, 추도사에 박종대 목사, 찬양에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설교에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바이올린 독주에 정한나 씨, 인사 및 광고에 정우현 장로, 축도에 임동선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 기도에 노재상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 말씀을 전한 박성규 목사는 "정성식 사모님의 삶은 아름다웠다. 내가 LA에 와서 이민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이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일생을 하나님께 충실하신 분이셨다"며 "이 시대 의인으로서 모범이 되셨던 정 사모님의 삶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림형천 목사, 나성영락교회 사임

LA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 하나인 나성영락교회의 림형천 담임목사가 성탄절인 25일 돌연 사임의사를 밝혔다. 그는 서울 잠실교회로 청빙을 받았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당회에 전했다.

잠실교회는 림형천 목사의 아버지인 림인식 목사가 노량진교회에 시무하던 당시 지원해 개척한 교회다. 당시 전도사 자격으로 이 교회를 개척한 원광기 목사는 71세를 맞아 은퇴하면서 모교회의 담임이었으며 동시에 은사이기도 한 림인식 목사의 아들인 림형천 목사를 후계자로 청빙한 것이다.

현재 나성영락교회의 성도수는 8천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잠실교회는 6천여명 규모다. 나성영락교회 당회는 일단 사의를 수락한 상태이며 후임자 청빙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림형천 목사는 고려대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 와 프린스턴신학교와 보스턴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이민목회를 시작했다. 1991년 아름다운교회를 뉴욕에 개척해 대형교회로 성장시키고, 지난 2003년 박희민 목사의 후임으로 나성영락교회에 부임했다.

김영신 기자

PHOTO NEWS

45대 남가주목사회 첫 공식일정은 사랑나눔

김영대 신임회장과 목사회 임원들이 취임식 후 노인들을 찾아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가 23일 오전에 그랜드파크 양로병원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 2011년 12월 18일 취임식 이후 남가주목사회 임원들은 한인사회의 어른들이면서 현재 외롭게 지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남가주목사회 주최, 장애우사랑교회(오진형 목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예배에서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옷 200벌과 선물 및 간식거리가 전달됐다. 간식은 목사회가, 옷은 이우형 목사(목사회 상임부회장)가 준비했다.

예배는 사회에 오진형 목사, 기도에 이우형 목사, 성경봉독에 허귀암 목사(목사회 총무), 말씀 증거에 김영대 목사, 축도에 김영모 목사(목사회 수석부회장), 광고에 오진형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특별 중창을 선보여 노인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말씀을 증거한 회장 김영대 목사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날 때부터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찬양한다"며 "성탄을 맞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자"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교계 행사 게시판

OC교협 이취임식 및 주요행사

OC교회협의회가 1월 9일 저녁 6시에 OC교협 이취임예배 및 신년하례회를 OC제일장로교회(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에서 드린다. 이 예배에서 박용덕 목사에 이어 엄영민 목사가 회장에 취임한다.

한편, 이에 앞서 OC교협은 1월 7일 오전 7시 30분 크라운플라자 호텔(1500 S. Raymond Ave., Fullerton, CA 92831)에서 강석희 얼바인 시장을 비롯해 OC한인회장, 지역사회 기관장들을 초청한 가운데 조찬예배를 드리고 신년을 시작한다.

또 1월 14일 오전 8시에는 남가주사랑의교회(1111 N. Brookhurst St.Anaheim, CA 92801)에서 미주한인재단과 함께 미주한인의날 기념감사 조찬예배를 드린다.

은파교회 창립예배 드린다

오아론 목사

은파교회(오아론 목사)가 2012년 1월 8일 오후 4시에 창립예배를 드린다.

창립예배에서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설교, 엄영민 목사(OC교협 회장)가 축사하고 특별 찬양으로 '어부들'이 순서를 맡는다. 이 교회 표어는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이다.

오아론 목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을 개척멤버로, 또는 창립예배 참석자로 정중히 초청한다"고 밝혔다.

교회 주소: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풀러신학대학원 동문회

파사데나 풀러신학대학원 한인총동문회(회장 박진구 목사)가 오는 2012년 1월 8일 오후 6시 애나하임에 있는 샘솟는교회(임바울 목사)에서 신년모임 및 풀러한인 M.Div.동문회(회장 박동건 목사) 제 13회 정기총회를 갖는다.

참여대상은 대학원 모든 학과 졸업생, 2012년에 졸업할 예정자와 그 가족이다.

동문회 측은 "모든 동문들과 가족은 꼭 참석하셔서 가족간의 친교와 목회 정보교환을 통해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가지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회비는 $20이고 부부동반시 $30이며 2011년 졸업자와 2012년 졸업 예정자는 무료다.

더 자세한 문의는 풀러신학대학원 한인총동문회 부회장 고승희 목사(909-238-2211)나 풀러한인 M.Div.동문회 부회장 박세헌 목사(323-404-3147)에게 하면 된다.

성경통독 및 전도 세미나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박신욱 목사)이 GBC성경통독과 전도훈련세미나인 고구마전도세미나를 시작한다.

90일 성경통독세미나 강사는 주해홍 목사(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원장)이며, 오는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총 16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고구마전도세미나 강사는 김기동 목사(고구마 글로벌미션 대표)로 오는 18일부터 4월 25일(총 15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두 세미나 등록비는 각각 교재비를 포함해 100불이며, 10인 이상 교회별 단체등록 시 한 사람당 50불이다.

주최측은 "개인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교회 차원에서 참여하면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며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여를 격려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213-381-1190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

은혜한인교회에서 오는 1월 19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신년축복성회를 개최한다. 19일과 20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21일에는 저녁 7시에, 22일에는 오전 7시 30분, 9시 30분, 11시 30분, 오후 2시, 6시에 집회가 열린다. 한편 은혜한인교회는 2일부터 7일까지 은혜이슬새벽부흥회를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주제 아래 드리고 있기도 하다. 강사는 한기홍 담임목사, 풀러신학교 박기호 교수, Vision to Reality 오석환 목사, 꿈이있는교회 황성주 목사 등이다.

주님의영광교회 임직식

주님의영광교회에서는
창립 13주년을 맞이하여 임직식을 갖습니다.
부디 오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목사 외 교우일동

임직자

장로장립: 김호경, 송성훈, 이송윤, 조영호, 최대용
장로임명: 김남기, 최영웅
장로피택: 권오성, 노현철, 윤현신, 이광수, 이종환, 임재출, 임제환
안수집사: 김경연, 김남규, 김신제, 김Joshua, 박수남, 이기환, 이인호, 이창록, 이 훈, 최상훈
권 사: 강윤숙, 김덕순, 김승연, 김영미, 김태정, 송선덕, 엄경자, 이미영, 이종애, 이현숙

일시: 2012년 1월 15일 (주일) 오후 4:30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비전센터 (Tel. 213-749-450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말씀: 한기홍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주님의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미주한인이민 109주년

The 109th Anniversary of the Korean Immigration to the USA

2012 미주한인의 날

2012 Korean American Day Celebration

매년 1월 13일은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제정된 미주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입니다.
한인의 문화와 정신을 주류사회에 알리고 한인이민선조가 미국에 공헌한 업적을 기려 한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미주한인은 한미간 FTA 체결을 축하하며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합니다.

2012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 일정

1 1월 9일 (월요일)

09:30 윌셔사립초등학교 현기식 및 차세대 교육 세미나
장 소 4900 Wilshire Bl., LA, CA 90010
13:00 미주한인재단 전국 임시 총회
장 소 JJ 그랜드 호텔 2층 회의실
17:00 2012 KAD기념 33인 작가전 개막식 (갤러리 웨스턴)
장 소 210 N. Western Ave. LA, CA 90004
19:00 전국총회장 취임식 및 안보.통일 세미나 (정용봉 박사/김명배 대사)
장 소 680 Wilshire Pl .1st Floor (LA 한국교육원)

2 1월 10일 (화요일)

17:00 Buena Park 시의회 선포식
장 소 6650 Beach Bl. Buena Park, CA 90622
17:00 Irvine 시의회 선포식
장 소 One Civic Center Plaza, Irvine, CA 92623
18:00 Glendale 시의회 선포식
장 소 613 Broadway, Glendale, CA 91206

3 1월 11일 (수요일)

10:00 윌턴 플레이스 초등학교 현기식 및 차세대 세미나
장 소 745 S. Wilton Pl. LA, CA 90005
19:30 2012 미주한인의 날 기념 감사예배
장 소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4 1월 12일 (목요일)

10:00 LA 한인회 현기식
장 소 981 S. Western Ave. LA, CA 90006
16:00 2012 미주한인의 날 기념 만찬 (LA총영사 관저)
(* 좌석관계로 초청받은 분만 모시게 됩니다.)
장 소 627 S. Rossmore Ave. LA, CA 90005
19:00 Cerritos 시의회 선포식
장 소 18025 Bloomfield Ave. Cerritos, CA92604

5 1월 13일 (금요일)

09:00 굿사마리탄 병원 현기식
장 소 1225 Wilshire Bl. LA, CA 90010
10:00 LA 시의회 선포식
장 소 200 N. Spring St. LA, CA 90012
19:00 미주한인의 날 기념 리셉션 및 축하 콘서트
장 소 파사데나 시빅 오디트리움
300 E. Green St., Pasadena, CA 91101

6 1월 14일 (토요일)

08:00 2012 미주한인의 날 기념 OC 감사예배
장 소 남가주 사랑의 교회 (고석찬 목사 / 선임)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10:00 어바인 미주한인의 날 축제 개막식
장 소 One Civic Center Plaza, Irvine, CA 92623
11:30 우정의 종 타종식 (Friendship Bell/ T. 213.249.7099)
장 소 3601 S. Gaffey St., San Pedro, CA 90731
16:00 2012 미주한인의 날 미술대회 시상식
장 소 680 Wilshire Pl. 1st Floor (LA 한국교육원)

7 1월 15일 (일요일)

11:30 미주한인의 날 기념 제 1회 주일 감사예배
장 소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2911 Lomita Bl, Torrance, CA 90505

8 1월 16일 (월요일)

08:00 미주한인의 날 기념 마틴루터킹데이 퍼레이드 참가
장 소 King Blvd. 선상 (Normandie + Crenshaw)

9 1월 17일 (화요일)

13:00 LA County Board of Supervisors 선포식
장 소 500 W. Temple St. LA, CA 90012
19:00 LA Palma 시의회 선포식
장 소 7822 Walker St., La Palma, CA 90623
19:00 Crescenta Valley Town Council 선포식
장 소 2809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10 1월 23일 (월요일)

13:00 미주한인의 날 기념 LA설날맞이 축제
장 소 Angelus Plaza (Senior Activity)
255 S. Hill St., 4th Floor., LA, CA 90012

*각 행사마다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회장 : 임낙균**
- **공동대회장 :** 최재현, 스카렛엄, 박정호, 변영익, 김영대, 박성규, 엄영민, 서명철
- **명예대회장 :** 신연성, 정용봉, 윤병욱, 정진철, 박희민, 송정명, 한기형, 박종대, 정세권
- **미주한인재단 전국 총회장 / LA회장 :** 박상원 , **전국 상임고문 / LA이사장 :** 정시우
- **명예고문 :** 랄프안, 임용근, 신호범, 김영진, 황우여, 박영창, 임동선, 신현웅, 권동환, 강태욱, 김현욱, 오익환, 김용환, Joshep Potter
- **고문 :** 미셸박스틸, 강석희, 최석호, 조재길, 스티브황보, 밀러오,서영석, 정병호, 김영태, 박광희, 이준남, 이숙현, 연훈, 이청광, 홍병식, 김진형, 만성스님, 오구, 잔안, 최문환, 이종렬, 차종환, 서동성, 민병수, 고석화, 이정수, 오상철, 안영대, 이연욱, 노명수, 박형만, 이영송, 이창건, 모종태, 황선철, 박상준, 이봉수, 양학봉, 김갑봉, 김용길, 전동석, 조명환, 민종기, 박효우, 이성우, 김경수, 백인학, 옥세철, 지정구, 양승걸, 이광덕, 이기홍, 최학량, 김종명, 이정순, 차만재, 윤성원, 안재경, 박영창, 이학선, 민병용,김성웅, 장헌일, 박신욱, 강신권, 한기홍, 강금자, 노붕례, 임동진
- **준비위원장 : 빈센트 김**
- **준비위원 :** 정시우, 윤병욱, 박상원, 이정희, 김경숙, Theodore차, Linda리, Karen리, Elliott김, Rachel김, 백형로, 김구식, 양경선, 박세헌, 이준희, 한규필, 권지현, JeffLee, 송규식, 박상준, 지니박, 조지최, 이정우, 김복임, 변홍진, 최창준, 정광원, 이가현, 김막동, 박인곤, 이매리, 장경희
- **특별후원 :** LA총영사관, 한국일보미주본사, 중앙일보미주본사, 라디오코리아,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천뉴스위크, 크리스천헤럴드, 헤럴드 경제
- **각언론사및 방송사 :** KBS LA(America), KBS Radio, KBS-World, MBC America, SBS, Radio Seoul, 우리방송 K 1230 , 연합뉴스, KTN,KTV24, LA18/SBS, 재외동포신문, 세계한인신문, 월드코리안신문미주통일신문&TV, 선데이 저널, 선데이 한국, 스포츠서울, 피플뉴스, 코리아나 뉴스, 코리아타운 데일리, 시니어뉴스, 교차로신문
- **후원 :** LA민주평통, 우정의종보존위원회, 나성순복음교회, 주님세운교회, LA한국교육원, 이민신학연구소, 국제외교안보포럼, 윌셔사립초등학교, 김본전간판, LA한인회, 굳사마리탄병원, 남가주사랑의 교회, Angelus Plaza한인회,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국가유공자 전우회 재미 서부연합회, 가든스윗호텔, 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 한나꽃집,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OC기독교협의회, 이북도민회, 한독화장품, 한미은행, VIP나성약국, 가데나 임약국, JJ그랜드 호텔, 대원식품, 웨스턴병원, 캘코보험, City Insurance, 우리약국, 경동선물도매센터, 빈센트킴 변호사 그룹, EMINATA 그룹, 박용만기념재단, PSU, 윌셔한인장로교회, (사) 애네겐 한인후손 후원재단, 기독교 목우회, 평택향우회, 현대 한의원, 한국근우회 미주지회, UDLA, 미주관우회, 한국민속연 연합회, 한국청소년 문화교류연맹, 남가주사원연합회, 흥사단-LA, 미주한인재단 워싱턴 DC/ATLANTA/OREGON/LAS VEGAS,윌턴플레이스초등학교,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orld-KICA),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재미한의사협회, 한국청소년 문화교류연맹, Kingdom day Parade, 세계문화스포츠재단 미주주부 클럽, 성민산삼한의원, 블로초 농축액, 포천홍삼, 신선초 게르마늄, 빅베어 농축 흑염소, 균형생식,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
- **연락처 : 미주한인재단-LA사무국 Tel. 213-389-3854 / e-mail : kafla21@gmail.com /www.kafusa.com**

주최 : 미주한인재단-USA / 주관 : 미주한인재단-LA

전국총회장 : 박상원 이사장 : 정시우 준비위원장 : 빈센트 김

독일 통일의 발화점 니콜라이교회에서 기도하자

대한민국 통일 위해 미기총-그날까지선교연합 손 잡아
"모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기도의 함성으로"

미기총 대표 송정명 목사

그날까지선교연합 대표 손인식 목사

"전미주 한인교회 연합해 기도할 것"

2012년은 한국, 미국, 북한의 정치적 변화의 때

민족을 깨우는 기도운동 의미 커

중요한 기도제목 잊은 한국교회에

북한 위한 연합 기도운동 불 붙일 것

"기도로 교회 깨우고 세상 깨우자"

베를린 장벽 무너뜨린 독일 교회의 기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한국과 디아스포라 교회 손 잡고

북한 위한 뜨거운 기도 운동 시작할 때

8년째 매주 월요일마다 독일 라이프찌히의 니콜라이교회에서 열리던 기도회가 교회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1989년 10월 9일 역사적인 독일 통일의 문이 열렸다. 이런 일이 반세기 이상 나뉘어진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손인식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답했고 송정명 목사는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려 한다"고 답했다.

2월 2일부터 4일까지 라이프찌히의 니콜라이교회에서는 대각성과 남북통일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린다. 독일 통일의 발화점이 되었던 그 역사적인 자리에서 미주 한인교회와 한국교회, 유럽 한인교회, 현지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 통일을 위한 기도의 불을 지피며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행사다.

특히 이 행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던 이들의 기도가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뻗어 나가며 실제로 통일을 이뤄낸 바로 그 자리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당시 크리스티안 퓌러(Christian Führer) 목사가 주도했던 이 월요기도 운동은 어느 밤, 8천명의 기도자를 교회로 모이게 했다. 이들은 기도했을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구체적 토론을 했다. 그리고 불을 켜고 교회 밖으로 나가 외치기 시작했고 이 기도가 이날 1백만명의 시민들에게 옮겨 붙으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자, 이제 한인교회는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갖고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와 그날까지선교연합(UTD, Until The Day)이 뜻을 모았다.

미기총은 말 그대로 미주 지역의 한인 교협들의 연합체이고 그날까지선교연합은 북한 선교 단체들이 연합해 북한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연합체다.

그날까지선교연합의 모태는 손인식 목사가 활동하고 있는 KCC이지만 KCC만이 아닌, 북한 선교에 뜻을 모은 모든 단체를 돕는 것이 그날까지선교연합의 사역이다. 교계 정치단체인 미기총과 풀뿌리 기독운동체인 그날까지선교연합이 하나된 데에는 현재 전미주에 대각성 운동을 함께 전파하는 송정명 목사와 손인식 목사가 "이 대각성의 기도 운동이 통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며 이뤄졌다.

독일에서 미주로, 미주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세계로 기도 운동 확산 계획

이 두 단체는 직접 니콜라이교회를 방문해 그곳에서 기도집회를 하며 대각성과 통일을 부르짖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미주교계와 한국교계, 유럽교계에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당시 이 운동을 이끌었던 퓌르 목사의 생생한 증언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인식 목사는 "김정일이 사망한 지금, 우리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가 손잡고 통일을 위해 세상을 깨우는 대각성 기도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KCC를 통해 미국에서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대두시켜 결국 한국교회에까지 기도의 불을 옮겨 붙인 장본인인 손 목사는 "독일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한국에까지 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라이프찌히 기도회 후에는 마치 라이프찌히에서 1989년 일어났던 것처럼 서울역 앞에서 통일광장 기도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방의 각 도시로도 이 기도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미주에서는 손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베델한인교회가 소재한 얼바인 시에서부터 기도운동이 시작된다.

송정명 목사는 "2012년은 한국의 총선과 대선, 미국의 대선, 북한의 강성대국 원년 선포 등 매우 중요한 한해라 볼 수 있다"며 "이 중요한 때, 민족을 깨우는 기도운동을 미기총이 적극 후원할 뿐 아니라 각 지역 교협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동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현재 한국 교계는 혼란을 겪고 있고 대형교회는 교회 성장에만 치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잊고 있다"고 일침을 놓으며 "모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연합하고 1세와 1.5세, 2세가 연합해 북한을 위해 울부짖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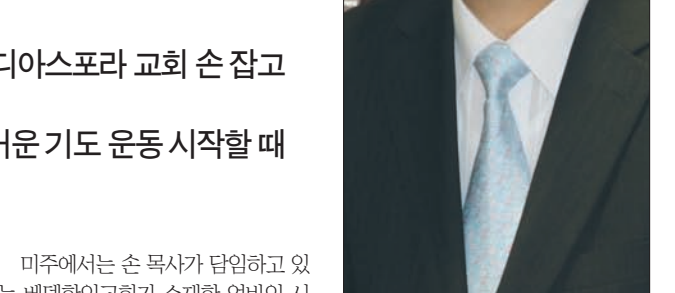
두 목회자는 라이프찌히 집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이들은 이 기도운동이 반드시 전미주로 확산되어야 하며 특히 모국 교회에 큰 영향을 주길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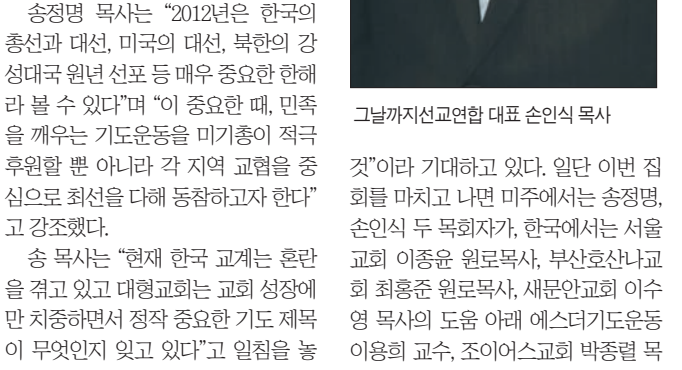
손인식 목사는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도 깨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 운동을 전파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일단 이번 집회를 마치고 나면 미주에서는 송정명, 손인식 두 목회자가, 한국에서는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 부산호산나교회 최홍준 원로목사, 새문안교회 이수영 목사의 도움 아래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교수, 조이어스교회 박종렬 목사가 이 운동을 확산시키게 된다.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경비는 자비량이며 주최측에서는 저렴한 호텔이나 항공 일정을 찾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다. 일단 1백명을 참가 인원으로 잡고 있다.

미주에서는 박병기 목사(949-468-6190, byungkeepark@gmail.com)를 통해 각종 문의를 할 수 있고 등록은 www.utdtimes.com/category/Leipzig에서 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북한 구원을 위한 기도회인 통곡기도회가 미주에서 시작된 후 한국을 거쳐 전세계로 확산된 것처럼 이번 라이프찌히 기도회도 미주와 한국, 전세계에 기도의 불을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2012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818-435-2441 / www.myccu.us

미 서부 침례신학교
I- 20 발급, 장학금 및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가능
1월과 6월 2주간 집중 강의로 3년 내에 D.Min. 취득 가능
GTU, UC Berkeley로 대학원 과정 수강 및 Ph.D. 수학 가능
M.A. in Community Leadership는 평신도 지도자 프로그램
760 South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00-2592 / baptistbob@verison.net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젼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위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위클리프 같은 개척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i.org

교회 음향 영상 조명 장비 연말 세일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shure mx418/c /18" 강대상 마이크 $199.00
earth work Cardioid 강대상 마이크 FM500 /19in $499.00 FM720 /27in $499.00
shure Cardioid 무선 핀 마이크 WL184 : 115 degree $106.00 WL185 : 130 degree $107.00
shure pgx24/sm58/무선마이크 핸드 타입 세트 $399.00
sennheiser 유선 마이크 e835 three pack $229.95 e835 single Handheld mic $83.00
Roland KC-350 4-Channel 120w Stereo Mixing Keyboard Amplifier $499.00
countryman E6i Directional earset mic / 무선 이어세트 마이크 $449.00
Microboard CD/DVD Duplicator QD-DVD-125 $519.00
Keyboard Instrument cable $4.99 ea $39.99 with 10ea
bose ds16f /천장 스피커 $79.00
superlux hd661/헤드셋 헤드폰 $49.00
ebtech HE-2-XLR (HUM ELIMINATOR (2 ch box w/XLR)험/노이지 제거기 $84.99
sabin fbx1020 FBX Feedback Exterminators:피드백 제어기 $329.99
hosa cable MMK-025AU / 25ft 마이크 케이블 $29.99
Sanyo PLC-XU4000 / 4000 Ansi 프로젝터 $1,098.00
Benq SP-920P / 6000Ansi 프로젝터 $2,999.00
Dalite Portable 100" Screen 90618 이동용 100인치 스크린 $199.00
25ft VGA Cable / 프로젝터& 컴퓨터 케이블 $15.00
MHP-20 / 프로젝터 마운트 $47.00
Telex SM-2 Telex SM-2 - Personal Listening System - A (sets of 4 users) 동시통역기 세트(4인 기준) Call for Price
beringer f1220A Powerd Monitor/ 파워 모니터 스피커 Active Monitor, EQ and volume. 125W $217.99
Music Stand / 보면대 $34.99
whirwind Director / DI-BOX $61.02
American DJ PAR CAN 56 Combo / 조명 파캔 콤보 키트 $59.95
Numark MP-102 CD player $199.00
Elation ELED DW PAR 56 / LED 조명 $369.00
Elation DLED 36 TriBrick / LED 조명 $499.00
Ushio 조명 램프 for Source4 & Opti Par HPL 120V-750WX $23.00 HPL 120V-575WX $23.00 HPL 120V-375WX $23.00 HX601 115V-575WBM $25.00
Yamaha DXPIV V-Drum $899.00
Yamaha S90XS Keyboard $2,299.00
Yamaha MotifXF7 76-key FSX action with initial and aftertouch $2,999.00
Behringer XENYX X1204USB 12-Channel USB Mixer with Effect $196.99
Behringer XENYX 1204 $98.99
Edirol V-4 Video Mixer $1174.95
Projector Lamp REPLACE Projector Lamp, Sanyo, Sony, Eiki, Panasonic, etc··· Call for Price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30 EM 2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하나님이주인되신교회,행복한교회,미래가열리는교회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웰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2부예배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고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11:00 금요제자기도회 오후7:30
주일학교 오전11:00 저녁기도회(월~목) 오후7:00
중 · 고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6:00
청년 · 대학부 주일예배후
김재율 담임목사

나성소망교회
제자사역,건강한중형교회,행복한가정
4063 Ingraham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550-7377 / lahop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7:30
2부예배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7:30 ,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10:30 (토) 오전 6:30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213)598-0191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 예배 :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 오전5:30
2부 예배 : 오전 11:30 Youth 예배 : 오전10:30
수요예배 : 오후 8:00 영어(EM)예배 :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8:00
2부예배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영어예배(EM) 오전 10:00 (토) 오전 6:30
유치,유년부,중고등부 오전 11:30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휄로쉽교회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김승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EM)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4부예배(찬양) 오후 2:30

뉴월드임마누엘교회
1234 E. 7th St. Los Angeles, CA 90017
T. (909) 993-4842, (909) 993-2157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주일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 주 일 예 배 -
(오전) 1부 예배 9시, 2부 11시
중/고등부 오후1:30
새벽기도 : 오전 5:15(화~금)
수요예배 : 오후 8:00
금요성령기도회 : 오후 8:00
주일학교 : 오전 11:00
청년토요예배 : 오후 6:0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예수님의제자되어주님과사람을 뜨겁게사랑하며섬기는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사 40:31)
1069 S. La Brea Ave. LA, CA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1부예배 오전 8:45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714)999-9900 / visioncc.org

1부 예배: 오전 7:30 4부 예배: 오후 1:0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크리스천이다,내가 크리스천이다.하나님은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 주일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학생회 주일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주일) 오후 1:30 한국어 학교(토) 오전 9:3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1부예배 오전 7:30 EM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오후 12:15, 2:00
5부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ilovecpc.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운타운 4가 Crocker St.)
1부거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박상규 담임목사

시온성중앙교회
은혜,사랑,선교로 복음의 빛을 비추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995-2868/ F.(714)995-0169

1부 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영어예배 오전 10시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김혜성 담임목사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정상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요셉선교교회
2728 James M wood Blvd, LA, CA90006
T. (213) 245-4090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엄규서 담임목사

윌셔크리스천교회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384-4272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EM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7:30(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휠로우쉽홀) 수요예배 오후7:45
정오 12:30 (본당 금요찬양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626) 795-6252 / F.(626) 584-6544

'강을 건너 세계로' ,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 samcare.org
대표 **박세록** 장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Valencia Dr. Unit #K,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불신자에게 "인생 고민 많죠?" 최악의 질문

교회 안 가는 사람 절반 이상 인생의 목적 고민 안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미국인들의 절반 가량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물음조차 던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미국인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인생의 목적을 고민하고 적어도 인생의 고차원적 목적에 호기심을 가진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스캇 맥코넬 디렉터(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생의 목적이나 계획에 대한 물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기 위해 교회에 갈 리가 없다"며 "기독교인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시작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라이프웨이 리서치팀은 "모든 인간에게는 궁극적 목적과 계획이 존재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의사를 물었고 이 중 75%는 "그렇다"며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교회를 한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성인 중 절반은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비쳤다.

또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분의 2(약 6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얼마나 자주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민하나"라는 질문에는 51%의 응답자가 적어도 한 달에 1번 가량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에는 매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고민한다는 비율이 18%에 달했다. 또 13%는 적어도 1년에 한번, 28%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사후세계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얼마나 자주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정말 천국으로 갈 것인가'라고 자문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31%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 중 8%는 매일 고민한다고 말했다. 또 11%의 응답자는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 1년에 한 번, 46%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죽음 이후에 평안을 체험하기 위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는 문장에 응답자 중 42%는 "그렇다"(이 중 20%는 강한 긍정), 50%(이중 30%는 강한 부정)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예배를 한번도 참석해 보지 않은 성인 그룹 중 63%는 "사후 세계를 위해 현재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다"는 문장에 강한 부정 의사를 나타냈다.

"현재 살고 있는 가시적인 세상 너머 또 다른 삶이 있을 것이다"라는 문장에는 응답자의 88%가 "그렇다"고 동의했으며, 이 중 67%가 강한 동의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그룹 중" 이번 조사에 응답한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성인 중 19%는 "현재 살고 있는 가시적인 세상과 사회 너머 또 다른 삶이 있을 것이다"는 문장에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성인 중 33%는 "모든 인간에게 궁극적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문장에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성인 중 63%는 "죽음 이후에 평안을 체험하기 위해 종종 내가 현재 해야 할 일을 자주 생각한다"는 문장에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성인 중 50%는 "자신의 인생에서 인생의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이 있나"는 질문에 강하게 부정했다.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성인 중 68%는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가"라는 질문에 절대 고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맥코넬 디렉터는 "이전에 실시한 조사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앙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 해서는 안된다"며 "그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어떻게 믿지 않는 이들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지를 추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권나라 기자

척 스미스 목사 폐암 발병

신년예배서 발표해, 기도 봇물

척 스미스 목사

캘리포니아 갈보리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가 신년 주일 예배(1월 1일) 때 자신의 몸에 폐암이 발병됐음을 알려 교인들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다. 아직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는 교인들의 기도를 요청했다.

이날 예배 이후에는 스미스 목사의 치유를 위해 부교역자를 비롯해 스미스 목사의 사위 브라이언 브로더슨 씨가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기도 했다.

"스미스 목사는 현재 84세로 담배를 핀 경력이 없다"고 어시스트뉴스 서비스는 보도했다. 스미스 목사는 화요일(3일)에 조직검사를 받고 다음주 수술에 들어가게 된다.

갈보리채플은 지난 주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오늘 목사님의 폐에서 암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얼마나 전이됐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조직검사 이후에 더 자세한 치료 방법을 보고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교인들의 기도를 부탁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수백명이 기도 요청에 응답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갈보리채플은 1965년 25명의 성도로 시작돼 현재 평균 주일 출석 9500명의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미국에서는 67번째(하츠포드인스티튜트 자료)로 큰 교회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겨온 척 스미스 목사는 2009년에도 약한 중풍 증세를 앓은 바 있다.

권나라 기자

김동호 목사 "나꼼수 안 좋아"

"세상을 또다른 모습으로 병들게 하고 있다
빈정거림과 욕은 문제 해결에 도움 안돼" 지적

김동호 목사

김 동 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가 페이스북에 올린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 대한 글이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페이스북 친구 절반 이상 잃어버릴 각오를 했다"는 김동호 목사는 "나는 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나꼼수에 열광하는지 안다"며 "나꼼수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지만 용기가 없거나 게을러 뒤에서만 숨어 울분을 토하는 일을 용감하게 대놓고, 속시원하게 하고 있다는 것.

김 목사는 "하지만 나는 '나꼼수'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방송에 있었는데, 그것은 빈정거림"이라고 했다. 나꼼수가 이야기하려는 진실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파헤치려 하는 거짓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들의 주장과 이야기가 다 옳아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동호 목사는 "오늘 처음 들은 나꼼수 방송은 '이 나쁜 새끼들아'로 끝을 맺었다"며 "아무리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도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그것은 저들이 가두고 싶어하는 거짓만큼이나 옳지 않으며 나아가 나쁜 것임을 저들은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나꼼수는 악으로 악을 이기려는 우를 범하고 있지만,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다"며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하셨는데, 빈정거림과 욕은 이에서 지난 것이자 옳지 않은 것,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악한 것이다"고도 했다.

그는 "옳지 않은 것으로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판단하고, 악한 것으로 악한 것을 고발하는 것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나는 나꼼수가 세상을 또다른 모습으로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오늘 한번 죽어보자"는 멘트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에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찬반을 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나꼼수를 지지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나이지리아 이슬람 단체
"기독교인 떠나든지 죽든지"

폭동 선동하며 기독교 위협 계속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Boko Haram)이 나이지리아 북부 기독교인들에게 3일 안에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며 경고했다.

보코하람은 지난 크리스마스 때 기독교인을 공격해 37명의 사망자와 5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이래로 북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슬람 극단주의 폭동을 선동하고 있다.

이에 조너선 굿럭 대통령이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증강하자, 보코하람은 군에 정면 대응할 계획임을 밝히며, 기독교인 주민들에게도 이같은 최후통첩을 보내 경고했다.

보코하람은 또한 남부에 있는 무슬림들에게는 북부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과 무슬림 인구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며, 지역적으로는 남부에 기독교인 인구가, 북부에 무슬림 인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보코하람을 비롯한 북부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은 기독교인인 굿럭 대통령의 정부 하에서 그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자원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서구 문명은 허용치 않는다'는 뜻의 보코하람은 알카에다 유관 단체로 간주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전역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할 것을 주장하는 단체다.

보코하람의 이같은 경고에 대해서 현지 인권운동가인 셰후 사니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경고한 그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북부 지역의 기독교인 주민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을 떠나서 갈 만한 곳이 없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이외에도 보코하람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을 우회해 다른 지역에서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비상사태 선포가 기독교인 보호와 보코하람의 폭력 행위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이 오히려 인권 학대에 가담하고 기독교인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지 기독교계의 비판을 받아 왔다.

손현정 기자

"고혈압 고치려면 교회에 나가라?"

노르웨이 대학 연구진, 혈압상관관계 조사

고혈압을 고치려면 교회에 나가라? 믿기지 않지만 전혀 신빙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혈압을 낮추는 것이 교회 출석율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한 의학 심리 전문 잡지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에 발표됐다.

"헌트 연구: 종교적 참여율과 혈압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연구조사는 노르웨지언대학교 과학기술부 연구팀에 의해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해롤드 코이닉 박사는 "교회 활동이 증가할수록 혈압은 현저하게 낮아졌다. 총 60회의 연구자료 중 3분의 2 가량이 교회 출석율이 혈압을 낮춰준다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이닉 박사는 "단지 교회에 간다고 해서 혈압이 낮아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체험하고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이웃과의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개인의 내면 변화를 통해 혈압이 결과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주장에 반기를 드는 이들도 있다. 미국 인본주의그룹인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로이 스펙하트 대표는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오는 변화이지 꼭 종교적 활동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교회이든 유대인의 회당이든 무신론자들의 모임이든,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지 그룹을 형성하고 소통하는 것을 통해 건강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말 교회 출석율이 혈압을 낮춰준다는 것을 말하려면 다른 종교단체들의 참여율도 함께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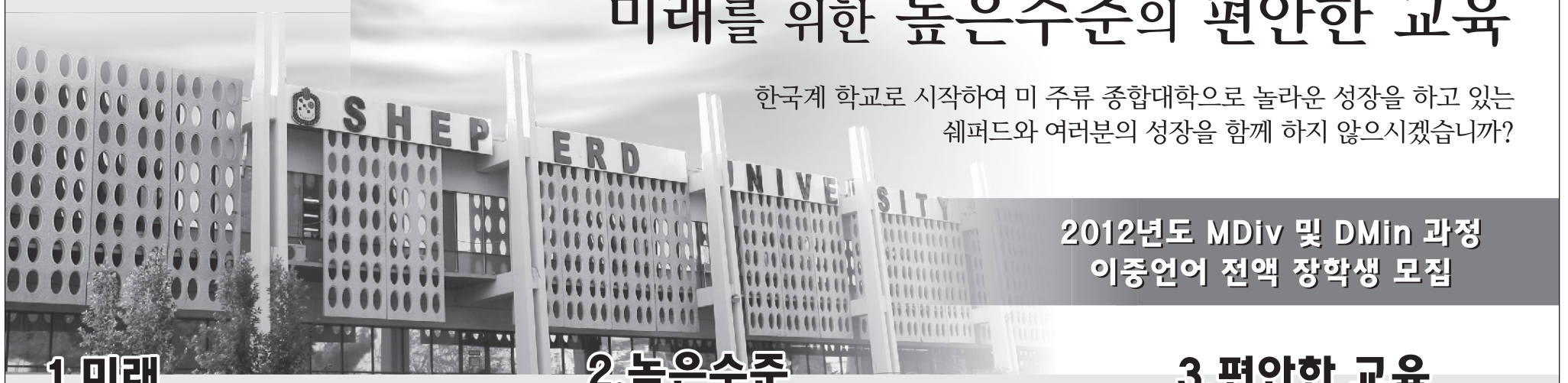
노르웨지언대학교의 연구팀 중 한 명인 조스테인 홀맨 교수는 "아직 연구의 시작 단계로 교회 출석율 외에 타 종교단체 비교 연구까지 시행하지는 못했다"며 "타 종교단체의 사회활동도 동일하게 혈압을 낮춰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나라 기자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의 사명은
훌륭한 기독교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님을 위한, 세계를 향한 (for the Lord, to the world)
탁월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입니다.

ATS 인준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만이 드리는
미래를 위한 높은수준의 편안한 교육

한국계 학교로 시작하여 미 주류 종합대학으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쉐퍼드와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12년도 MDiv 및 DMin 과정
이중언어 전액 장학생 모집

1.미래
- 미군 군목 장교 진출
- 미 주요교단 안수가능
- UCLA 와 Stanford가 속한 종합대학인준 기관을 통한 세계수준의 학교발전
- 영어강의를 통한 세계화 교육
- 이민목회담임,부교역자,전도사,평신도 지도자 사역
- 세계선교지에 신대학장, 교수, 선교기관장, 선교사 사역
- 일터사역자 양성

2.높은수준
- ATS 인준(Candidacy) 목회학석사,목회학박사과정 및 신학 학사 프로그램
- 세계 최고의 영적 리더쉽을 통한 교육
  -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영성과 제자도, 교회성장학)
  - -찰스 크래프트 (내적치유, 영적전쟁, 문화인류학)
  - -에드 실보소 (Global Transformation)
- IT, 음대, 간호대 복수전공을 통한 Crossover 전문인 양성
- 미 주류 종합대학 기준의 철저한 학습과정과 결과평가

3.편안한 교육
- 정부 학비 보조 가능
- 다양한 장학혜택과 저렴한 학비
- On-Line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시스템
- 영어강의 / 통역강의
- 스쿨버스 운영을 통한 편리한 교통
- 교수들의 멘토링 지원
- 이중언어 및 성적우수자 전액 장학금 지원
- Writing / Speaking Center 무료운영

SHEPHERD UNIVERSITY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상담 및 입학문의
213-481-1313

2012년을 맞이하며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우리의 나이 수만큼이나 많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2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2012년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을 예견합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과 이란 및 중동 여러 나라에 지난해의 많은 변화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부채와 달러 가치의 하락은 우리가 처한 열악한 경제적 환경입니다. 달러화는 세계기축통화로서의 신뢰감을 상실하였고, 강대국들이 무역에서 자국의 통화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영적인 암울함이 세계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상실하고 있는 미국은 점차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도 상실하면서, 이교적인 가르침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반기독교적 경향과 이슬람교의 공세적 활동이 드러나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물러서거나 무관심 속에서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신자는 결코 세상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사탄]를 이기는 자"(계 12:11)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세워 자신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를 흔드는 변화의 사람들(행 17: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대위임령은 단지 모든 개개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all nations)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뿐 아니라 도시와 문화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작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생물적인 숫자의 증대만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서 인간의 영향력의 확대라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교회의 성역을 포함하여 그 나라의 핵심에 있는 시장(marketplace)이라는 상업의 영역과 국가라는 정치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올립시다. 먼저는 내가 살고 있는 집과 가족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거리와 이웃을 축복합시다. 주변의 길이 애비뉴(Avenue)든, 스트릿(Street)이든, 블르버드(Blouvard)든, 그곳에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주민과 상점과 관공서와 병원을 축복합시다.

기도하다가 축복할 수가 없는 곳들, 예를 들어 성인클럽, 도박장, 술집 및 우범지역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정책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치인과 시장, 시의원, 공무원, 교사 및 금융업 종사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2012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보편적 사고에서 전향적 사고로"
생각의 전환으로 새로운 2012년 되길

김지성 목사
글로발선교교회

지난 주간 전임교역자 수련회를 위해서 레이크 에로헤드를 찾았습니다. 레이크 에로헤드는 고도 5108 피트의 통상 빅베어로 불리우는 샌버나디노 산 중에 위치한 깨끗한 수질의 호수입니다.

이 호수를 중심으로 예쁜 산장, 아기자기한 쇼핑몰, 그리고 주택들이 오밀조밀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사시사철 관광객으로 붐비는 전경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울창한 수목들과 더불어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의 풍광은 흡사 스위스의 알프스산 전경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사방이 사막지대인 남가주에 레이크 에로헤드는 마치 오아시스처럼 남가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크 에로헤드는 직선거리로는 2.2마일이지만 호수 둘레는 약 14마일에 이르며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은 56미터에 이르는 인공 호수입니다. 늘 물이 부족한 남가주에 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1899년부터 1912년까지 13년간 공사를 진행하여 만든 일종의 저수지입니다.

전체 면적이 782 에이커에 이르니 인공호수 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큰 호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산중의 인공 호수를 만들기 위하여 이미 110년 전에 5000 피트가 넘는 산 정상까지 도로를 먼저 건설하고 각종 자재를 날랐다고 합니다.

레이크 에로헤드에 오르면서 미국인들의 저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다수의 세계인들이 말이나 마차 정도를 운송 수단으로 여기고 있던 시절, 미국은 가파른 샌버나디노 산을 오를 수 있는 자동차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확보를 위해 5000 피트가 넘는 산정상에 인공 호수를 조성했습니다.

100여년 전 당시 이런 프로젝트를 상상했던 나라들이 과연 몇 나라나 되었을까요? 각종 건설장비며 중장비가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산 정상에 인공 호수를 만드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데 스팀엔진으로 가동되는 자동차가 고작이었던 100여년 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생각의 한계는 무한합니다. 발명될 것은 다 발명된 것 같은데 창조의 스피릿은 여전히 발휘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생각을 멈추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보편적 사고에 편승하면 보편적 삶을 얻을 뿐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감히 생각지 못하는 전향적 사고를 갖는다면 특별한 삶을 얻게 됩니다.

100여년 전 산 정상에 인공 호수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보편적 사고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무개한 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인들은 전향적 사고체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5000 피트가 넘는 산정상에 인공 호수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강력국가가 되도록 만든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전향적 사고가 강력한 나라를 이루도록 만든 것입니다.

대망의 2012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움이 새로움다우려면 생각부터 새로워야 합니다. 시간의 새로움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한 해도 흘려 보낸 시간의 답습만이 이뤄질 따름입니다. 생각의 전향.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보편적 사고에 머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보편적 사고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보편적 사고로는 평범을 뛰어넘는 비범을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존재(The Special One)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은 보편적 삶에서 특별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보편적 삶에서 특별한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삶은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시도하십시오. 분명히 2012년은 특별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다사다난했던 2011년이 역사 속으로 묻혀지면서 희망의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지난해의 아쉬웠던 일들이 툭툭 튀어 나와 혈압을 올리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스프링처럼 솟아 올라와 살 맛 나게 한다.

이런 두 마음은 고대 헬라 사람들에게도 있었다. 그들은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야누스 신을 섬겼다. 그 신의 특징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한 얼굴은 뒤를 보고 다른 한 얼굴은 앞을 보고 있다. 그 뜻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수를 거울삼아 앞날을 새롭게 잘 설계하라는 것이다.

헬라 사람과 우리와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많지만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은 옛이나 지금이나 같다. 한없이 흐르는 시간을 누구도 멈출 수는 없으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토막내서 짧게는 하루, 한달, 일년, 십년, 백년 또는 천년으로 잘라서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새로 짜는 일을 한다.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꿈으로 미지의 한 해를 출발하기에 설레임이 있고 매력이 있다. 문제는 미래에 그리는 아름다운 꿈이 다가올 때 얼마나 빨리 잡고 놓치지 않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미국의 강철왕이라는 앤드류 카네기에게 어느날 "그렇게 크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기자가 물었다. 그는 기자에게 "사람에게는 성공할 기회가 두 번 있다. 한 번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기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그것을 잘 붙잡으면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그는 10대 소년 때 목화공장에서 주당 1불 20센트를 받으면서도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 그 작은 돈에서 십분의 일을 교회에 바쳤다. 그는 어려서 부터 돈벌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배우면서 또한 힘들게 번 돈의 일부를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몸에 익혔다. 또 그는 돈버는 기회를 잘 포착했다. 미국의 횡단 철도를 놓는 1850-60년대 그는 강철회사를 설립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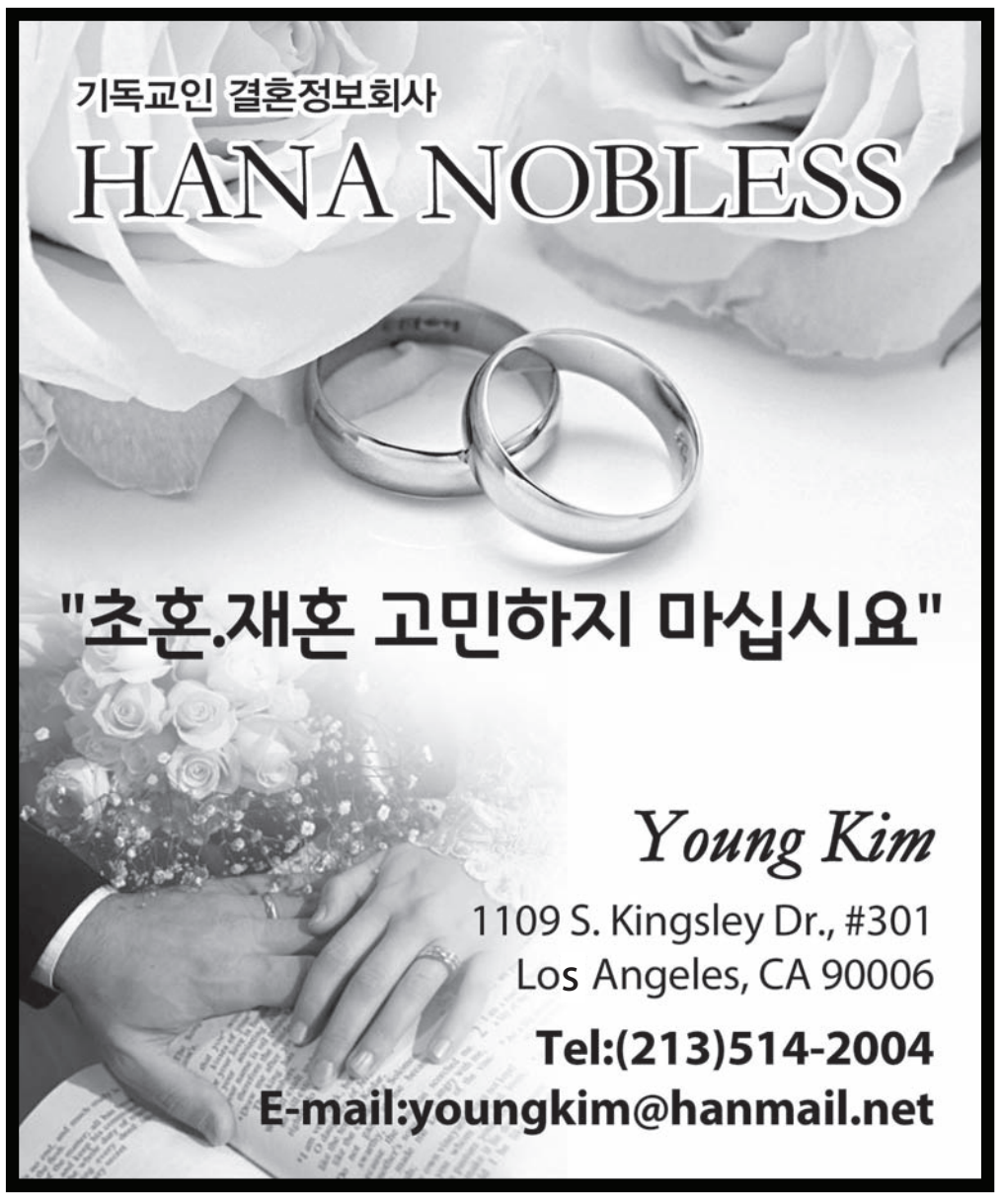
그는 번 돈을 쓸 줄도 아는 사람이라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에 인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거나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탐탁치 않게 여기거나 또는 게을러 그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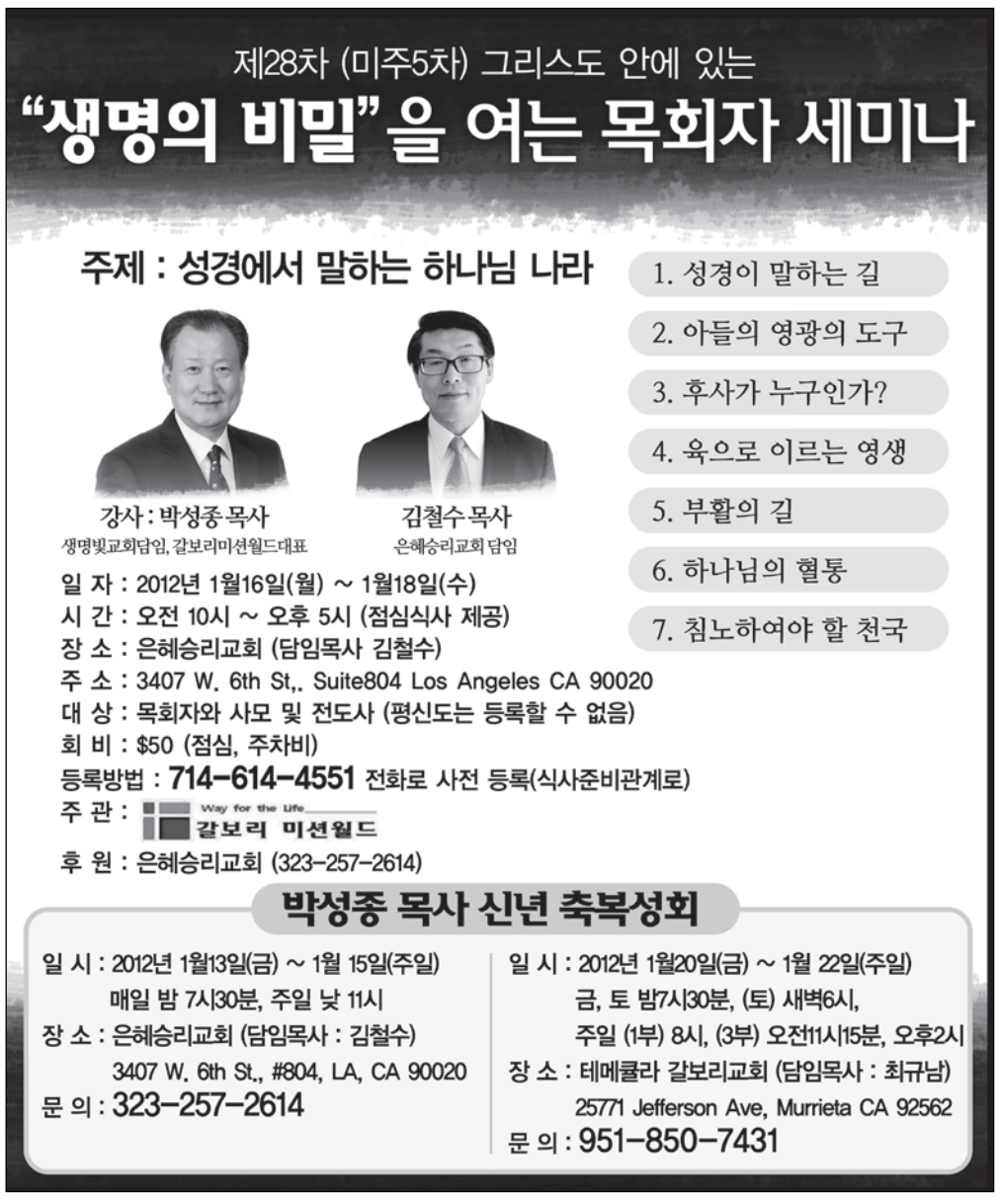
어떤 경우에는 외부의 환경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로막아 아깝게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잔인한 독재자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 사형 언도를 받은 본 훼퍼가 194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감옥에서 쓴 글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깊은 감명을 준다. "슬픔으로 넘친 잔에 고통의 마지막 찌거기라도 내가 마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나는 주저없이 감사하며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시 한 번 나를 이 쇠사슬에서 풀어 주시고 생의 선한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 땐 오랜 세월동안 이 고난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더 강하게 생의 전부를 당신의 것으로 바쳐 살겠습니다."

그는 새로 맞이하는 새해에 자유의 몸이 된다면 좀더 가치있고 멋지게 살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환경은 그것을 묵살했다. 그 편지를 쓴지 몇 달 만에 그는 애석하게 총살을 당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독일은 연합군에게 항복했다. 그는 세계가 아끼는 양심적인 신앙인이고 사상가요 혁명가였지만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졌다.

오늘 우리는 현대 물질 문명의 풍요한 세상에 살면서 혼탁한 오염 속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 치며 2012년 문턱을 넘는다. 앞으로 어떻게 한 해가 전개될지 누구도 모르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기회가 내게 오든지 그 일을 피하거나 남에게 미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를 통하여 삶이 풍부해지는 한해가 될 것이란 점이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더욱 더 큰 열매로 맺어지고 자신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큰 은혜를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조요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광고국장 : 이인규
지 사 망 :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北인권 향한 한인교회의 침묵, 이는 영적 전쟁

〈디펜스포럼 대표〉 수잔 숄티 여사 인터뷰

북한 김정일이 사망한 지 1주일이 지났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 굳히기가 시작되면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인권운동가들의 동일한 우려다.

탈북자의 대모(大母)로 불리며 탈북자 및 북한 인권에 앞장서는 수잔 숄티 대표(미 디펜스포럼재단, 북한자유연합)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난 한 해동안 늘어난 정치범수용소, 3배로 뛴 공개 처형의 숫자 등으로 볼 때 더욱 심해지고 있는 인권유린 현상"이라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한 숄티 대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및 인권 학살은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라) 유대인 대학살에 비등한 국제적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중국 당국의 탈북자 북송 정책 등은 국제협약 위반으로 국제 사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녀는 오늘도 수백만의 침묵하는 한국인들을 대신해 부르짖고 있다. "Free North Korea!"

아래는 수잔 숄티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독재자 김정일이 사망했다. 이런 시기에 인권운동가로서 가장 큰 우려는 무엇인가?

가장 큰 걱정은 늘어나는 북한 민족을 향한 인권 학대 사례다. 이것은 두 가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첫째는 김정일 정권은 장남과 차남을 제치고 김정은을 차기 지도자로 선택했는데, 김정은이 그의 아버지처럼 무자비하고 잔인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난 한 해동안 정치범수용소의 숫자가 늘어났고, 공개 처형의 숫자가 예년에 비해 3배로 뛰었다.

중국 내 탈북자 처형도 더 많아졌고, 탈북자들을 돕는 인권활동가들이 북한공작원에 의해 많이 끌려나온 상황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 계승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결과로, 더 많은 숙청이나 인권 학대사례가 계승 과정에서 벌어질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 정치범수용소는 얼마나 있는가? 그들의 상황은 어떤가?

적어도 6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최소 15만명이 수용돼 있다. 수용소에 한번 갇히면 굶어 죽거나 힘든 고역으로 죽기 때문에 '죽음의 수용소'로 부른다. 수용소로 끌려오는 대부분은 자신이 왜 끌려가는지, 얼마나 오래 수용될 지 모른다. 하루 동안 15시간 중노동을 하면서 노예처럼 생활하는 것은 물론 주어지는 음식은 극소량이고 위생상태도 엉망이다.

가족 중 한 명이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거나 식량상태에 대한 불평을 터뜨렸거나, 정권에 대한 적절한 존경을 표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낙인 찍혀 온 가족이 수용소에 갇힌다.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전세계에 살고 있는가? 그들의 삶에 대해 나눠달라.

타국에 안전하게 정착한 탈북자들의 수를 말한다면 적어도 2만5천명을 추산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최소 3만5천명에서 10만명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이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이유는 중국 정부의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탈북자 정책이 정확한 수치 통계를 불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해서는 현재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보다 풀기 쉽다고 보고 있다.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북송할 경우 대부분 고문당하거나 투옥되거나 때로는 공개처형 되기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북송을 실행함으로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여성 탈북자들의 80%를 중국 남성의 아내 혹은 사창가로, 인터넷 포르노 업체로 팔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 탈북자들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정책과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UNHCR) 접근 방해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힘없는 난민들이 됐다.

잠시 생각해 보라. 중국은 북한 공작원들이 탈북자들과 기독 인권운동가들을 암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난민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의 접근을 막고, 탈북자를 도우려는 자국(중국) 주민들까지 투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 관련 문제로 인해 국제 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운동가로서 어려움은 없나? 어떨 때 좌절감을 경험하는가?

솔직히 말하면 매일이 좌절이다. 때로는 북한 주민을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감정이 밀려올 때도 있다. 우리 단체의 활동으로 수백명의 생명을 구한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서는 하루에도 수백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절망하게 하는 이유다.

미국인으로서 어떻게 북한 주민을 향한 열심을 품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위 질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인데, 내가 하나님께 "왜 나에게 북한이라는 짐을 주셨느냐"고 절망감과 좌절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가 있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함께 마음 아파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생각나게 해 주셨다. 그래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게 된 당신의 신앙을 잠시 나눠달라.

많이 힘든 순간 순간 가운데에서도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 한다면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공안들에게 붙잡혀 옥살이를 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중국대사관 앞에서 큰 소리로 수백명의 탈북자 이름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부르며 이들의 자유를 촉구하는 시위를 한 적이 있다. 그 중에 탈북자를 돕다가 붙잡힌 한국 국적의 기독교인 김희태 씨가 있었다. 전세계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 같은 시위가 이뤄졌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시위와 항의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폴란드 지역 와소 지역에서도 동일한 시위를 벌였는데 시위 한 달 후 무렵 김상훈이라는 인권 운동가에게 이메일이 왔다. "수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희태 씨가 중국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받고 풀려났어요. 그가 밤에 몰래 라디오를 듣다가 한 날에는 그의 이름이 시위대에서 불려지는 것을 들었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는 이 일로 다시 일어나 싸울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났다. 김희태 씨가 중국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폴란드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우연히 청취하게 된 것이다.

한인교회 혹은 한국교회들에 북한 사역이 여전히 찬밥 신세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이 문제는 나도 많이 생각해 봤다. 왜 한인교회들은 해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지에 관해서 말이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이뤄지는 영적 전쟁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 내 오랜 생각의 결론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북한 인권 문제를 나눌 때, 사람들은 "당신은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문제에 관여합니까?"라고 묻는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만약 내가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말한다고 해도 나에게 "당신은 유대인도 아닌데, 왜 상관하느냐"고 물을 것이냐고, 혹은 르완다 집단 학살에 대해서 말해도 "아프리카인도 아니면서 왜 상관하느냐"라고 말할 것이냐고 말이다.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일어나는 최악의 인권 비극이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 전쟁의 일부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북한에 식량이나 의약품 지원과 관련해 어떤 방법이 진정 북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북한에 어떤 수단을 통해 지원을 한다면 의도된 수취인에게 물품이나 음식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것이다. 다른 말로, 굶주리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식량이 가고 아픈 아이에게 약품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전달해야 한다는 말이다.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물품의 소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외부에 알려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원이 현 정권에 의해 의도했던 수취인이 아닌 곳으로 보내지거나 군인 배식, 지도급들에 의해 이용될 것이다. 북한은 수백만의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핵무기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원물품을 사용해 왔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보아왔다.

대북 인권운동가로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것은 북한에 자유가 선포되고,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진 후에 남한과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김정일이 사망한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고 동시에 큰 기회의 때를 살고 있다.

사실 북한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밖 즉 한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미래의 북한의 변화를 위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이다.

예를 들면, 지금보다 더 크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외쳐야 한다. 북한 민족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들 자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로 인해, 북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고립된 민족이 아니다. 수도권인 평양 외 지역에서는 비참한 자신들의 현실이 한국이나 미국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현 체제 탓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다.

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인류애적인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 체제로 인해 주민들이 굶주림과 아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북한 지도층들에게는 이제는 개혁과 개방의 때를 맞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동시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라는 사실도 함께 말이다. 이것이 내가 한국에서 재판소를 설립해 탈북자로부터 증언과 증거를 모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벌인 이들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왜냐하면 모든 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한 한국 국민으로 법적 권리가 있으며, 이는 학대받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일이 된다면, 한국에 의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 보는가?

북한 주민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우리 단체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위상'을 위해 싸운다. 북한은 한국보다 여러 면에서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그리고 규율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때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남한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 떼지어 남한으로 몰려올 것을 걱정하지만 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고 농담조로 말한다.

남한에 있건 미국에 있건 탈북자들(50년 대 탈북자들을 포함)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나라를 복원하려고 할 것이고, 개신교단, 가톨릭 등 종교지도자들도 북한으로 몰려갈 것이다. 사업가들도 투자할 것이다. 사람들은 6.25 전쟁 발발 당시만 해도 북한이 경제적인 동력원으로 남한보다 더 많은 산업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다. 남한에 있는 한국인들을 보라. 그렇게 짧은 시간만에 한국 전쟁을 치른 잿더미 국가를 세계 12위 경제 선진국으로 발전시켰다.

통일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나 사업가들도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중국 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공산주의 정부가 이를 두려워 하면서 북한 정권 체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마지막으로 한인 교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탈북자 NGO나 남한의 14개 탈북자 교회를 지원해 달라. 많은 교회들이나 기독 NGO들은 평양에 가짜 교회를 짓고 북한 정부를 지원함을 통해서 북한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환상에 여전히 굴복하고 있다. 그런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한다.

북한에 직접 방송되는 자유아시아방송 라디오 매체나 탈북자들의 교회를 도와야 한다. 탈북자들의 교회가 진짜 북한 교회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시간과 재능이 필요하고 그것은 결국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길을 닦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엄청난 금액의 지원금을 북한이 개방됐을 때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 자체이며, 북한 사람들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살며 자유가 있는 우리들의 기도와 자원이 필요하다. 탈북자 NGO, 탈북자 교회, 자유아시아방송 등 북한 자유를 위한 노력을 펼치는 이들에게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한가지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지금은 목회자가 된 탈북자가 진행하는, 주체사상과 기독교를 비교 대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북한으로 방송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자매 결연해 한국의 탈북자교회들을 지원하고 라디오 매체들을 돕기 바란다.

권나라 기자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훼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 집.건물 경매 STOP!!! ★
긴급경매 NOT,TRO,QWR,BK 전문
• 최장기간 연장 "합법거주" 약속 퇴거명령번복, 연방법, 주법 의거함.
• 그외 형사상채, 마약소지및판매, 강도, 강간, 폭행, 배우자폭력, 음주운전…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이 변호합니다"
메리츠 법률그룹 / 이진우
18000 STUDEBAKER ROAD. #700. CERRITOS, CA 90703
TEL:888-210-1238 / FAX:888-210-1239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윌셔+킹슬리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2월 18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속성과정 학생모집 (왁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BSBFJ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 입니다!
퇴거.파산.이혼.이민.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썬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러쉽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둥굴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금 최고가 현금매입 삽니다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213-407-8759 / Other:714-293-9701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1-15 South Exit Main Street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톤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톤대학 (부속) 편강한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JJ 플러밍 뻥 뚫어요!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싱크대, 욕조, 변기 등
▶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로 교체
▶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각종 Faucets, 디스포셜,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머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웍 공인딜러 KNA
무료가입 및 설치문의
www.knamedia.com
1.888.894.8949

커텐 전문
가주 L.A. 커텐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먹고 바르기도하는 알로에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체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asafterschool.blogspot.com
믿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SAS Afterschool
Pick UP, 건강한 식단과 함께
학교공부 전반을 100% 도와 드립니다.
213.785.2427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욕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가나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업용 화한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이단 예방만 해도 90% 효과

이단 연구 전문가 한선희 목사 "한인교회 깨어 있어야"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회장 한선희 목사가 미주 지역 한인교계에 이단 예방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단체는 1994년 조직될 당시부터 자료집 발간, 세미나와 강연회 등으로 활발히 사역했으며 2006년까지 10여년동안 故 장동섭 목사가 회장으로 섬기다 한선희 목사가 회장직을 이어받았다. 이 단체 초창기부터 총무로 봉사해 온 한 목사는 시티즌미션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우연히 여호와의증인 청년을 만나면서 이단 예방 사역을 시작해 올해로 35년을 맞이했다.

그에 따르면, 이단 예방 교육을 한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에 비해 피해를 90% 정도 덜 본다. 100% 안전할 수는 없겠지만 90%라도 안전할 수 있다면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는 "특히 신천지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 잠입하는 단체들이 늘면서 예방 사역의 중요성은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목사는 안타까움도 동시에 전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단 문제를 대한다"는 것이다. "내 교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소양있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이단 문제에 관해 말할,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었다 할 수 있지만 고도로 지능화되는 이단의 전략을 직접 연구한 목회자만이 할 수 있다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 한 목사의 지론이다.

한선희 목사가 이단 예방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신천지의 경우, 교회 목회자를 '개'라고 부르면서 교회에 잠입해 '산 옮기기'라는 전략 아래 통째로 그 교회를 접수하는 일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밝히며 "남가주 지역에는 이미 4년 전에 추수꾼이라 불리는 신천지 사역자 4백명이 왔으며 그들이 각 교회에서 교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 목사는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 씨를 보혜사, 재림주 혹은 이긴 자라고 부르며 십사만사천명 전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 일터복음화 일꾼들 2011년 송년 모임

황선철 연합회장 "영성 충만한 CBMC 되길 기원"

남가주 지역 CBMC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1년을 결산했다.

"일터 복음화"에 뜻을 모은 남가주 지역의 한인 기독실업인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송년연합모임을 열고 2012년을 연합과 전진의 한 해로 선포했다.

"비지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비전 아래 2011년을 사역해 온 실업인들은 이 모임에서 한 해의 사역을 결산함과 동시에 친교를 통해 내년의 사역에 더욱 힘쓸 것을 기약했다.

남가주한인기독실업인연합회(남가주 CBMC연합회, 회장 황선철)가 주최한 이 모임에는 남가주CBMC(회장 최종원), 윌셔CBMC(회장 신남균), K타운CBMC(회장 김영균), 샌디에고CBMC(회장 조평규) 등 산하 단체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 남가주한인목사회로부터 회장 김영대 목사 등 임원들이 참석해 CBMC와 목사회의 우의를 과시하기도 했다.

연합회의 황선철 회장은 "지난해 CBMC 북미주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낸 것을 가장 큰 성과요 은혜로 꼽고 싶다.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은 목사회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 영성이 더욱 충만한 CBMC가 되기 원한다"며 협력의사를 전했다.

한편, CBMC 연합회는 1월 14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가든스윗호텔에서 신년하례 조찬모임을 시작으로 2012년 사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그래미상 후보 오른 한인 1세 남상욱 씨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영광 돌리고 싶어"

서로 다른 색깔의 곡들을 한 앨범에 담는 마지막 과정을 마스터링이라고 부른다. 한 곡, 한 곡의 특징과 장점을 잘 분석하고 살려 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곡이 서로 통일성을 갖도록 하는 고난이도의 작업이다.

음악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래미상. 올해 54회를 맞이하는 그래미상의 비클래식 부문 최고 기술상에 후보로 오른 남상욱 씨는 1세이지만 미국 주류 음악인들과 당당히 겨루어 그 실력을 인정받는 자랑스런 한인이다.

그가 앨범 제작 과정 중 맡는 일이 바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일인 만큼 그도 자신의 삶에서 정말 맞추어야 하는 밸런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쁜 중에도 매일 새벽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며 신앙과 일의 밸런스를 잡고 있다. 벤추라감리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기며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 드리는 일도 그의 중요한 사역이다.

서울대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서울대 음대에서 작곡을 공부한 그는 전공을 살려 마스터링 전문가가 됐다. 수많은 앨범들이 그의 손을 거쳐 제작됐다. 미국 유명 가수들의 앨범은 물론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기타리스트 박주원, 가수 김완선, 베이스시트 장효석의 앨범도 그의 작품이다.

그에게는 한가지 고백이 있다. "특별한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이다. 그래서 그에게 기독교 앨범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의 작곡자인 폴 발로쉬의 앨범, CCM 가수 이대귀 씨의 앨범, 블랙가스펠 그룹 헤리티지의 앨범, 마커스워십의 앨범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기독교 앨범을 작업할 때 특별한 은혜와 보람을 느낀다"면서 "내가 가진 기술로 보다 수준높은 앨범을 제작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앨범을 제작할 때 내가 가진 노하우와 인맥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직업 현장이 늘 밝은 것은 아니다. 남 씨는 "마약과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는 음악인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타락한 문화를 전하는 앨범이 제작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과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업의 특성상, 만나야 하는 음악인들이 때론 거만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남상욱 씨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다고 한다.

또, 그는 한국 기독교 음악계가 겪는 침체와 어려움에 대해 "현재 대중음악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오히려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CCM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저작권 문제를 겪었으며 음반 판매가 저조해 사역자들의 생계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그런 와중에 사역자들은 교회 사역이나 예배 인도 등을 통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대중음악계는 요 근래에 이 문제를 겪게 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독교 음악계가 먼저 이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대중음악계보다 어떤 면에서는 상황이 낫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더욱 더 기독교 음악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를 비롯한 크리스천 음악인들의 사명이란 생각이다.

새라 저로즈의 〈팔로우 미 다운(Follow Me Down)〉 앨범으로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남 씨는 끝으로 "음악인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그래미상의 후보로 오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능력을 주셨고 내가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겸손함을 잊지 않았다. 한편, 이번 그래미상의 발표는 2월 12일 LA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있다.

김준형 기자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HYUNDAI

SouthBayHyundai Super Store

미주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푸엔테힐스 현대, 싸우스베이 현대로 오십시오.
최대규모, 최다 차량보유, 최신 장비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가격보장

America's Best Warranty 10 Year/100,000 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2012 임진년 새해에는
고객님들 가정에
축복이 가득 하시길
저희 임직원 모두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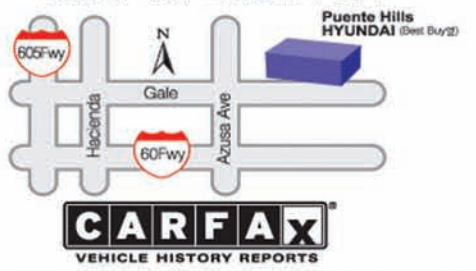
800대를 수용하는 미주 최대 단일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2012 NEW GENESIS

2012 NEW EQUUS

에쿠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에쿠스 리무진으로
딜러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예약 : 제니김

한인타운에서 20분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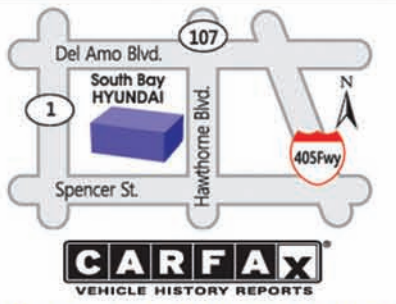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PH 푸엔테힐스 현대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WWW.PHHYUNDAI.COM
888.212.6431

General Mananger 쉐리 워터스
Sales Mananger 저스틴 길
Fleet Mananger 찰리 정
Sales 케빈
Sales 맥스 정
Sales 뉴튼 임
Sales 스티브 장
Customer care 제니 김

FREE CAR WASH
$27.95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SB 싸우스베이 현대
20433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WWW.SBHYUNDAI.COM
888.531.0890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mazda 푸엔테힐스 마즈다
www.mazdaofpuentehills.com

2012 NEW MAZDA3
ZOOM - ZOOM

New 2011 MAZDA Miatas VIN:215474
MSRP $29,655
MPH Discount* $5,157
Mazda Loyalty Rebate** $500

*Dealer participation in lieu of 0% APR Financing.
**Must haveMazda currently registered at same address

SPECIAL RATE 0%

한국인 상담 제니 김
1-888-536-0576

Sales Representative
조성국

17723 E.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최상의 가격
최상의 서비스